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홈캐시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498호

Thursday, February 26 2026 A

## 트럼프 “관세 더 세질것...더 나쁜 합의도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국정연설에서 연방 대법원의 제동에도 관세 정책은 흔들림이 없고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관세로 수천억 달러를 확보해 미국에 경제적으로, 국가안보 측면에서 훌륭한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자랑했다. 지난 20일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대법관 앞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들에게 훨씬 더 나은 것을 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관세 조치는 조금 복잡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해결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체 수단을 동원한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정연설은 미 대통령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년간의 국정



“저 사람들은 미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진행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역대 최장인 108분간 이어진 이날 연설은 자화자찬과 편 가르기로 채워졌다. >> 관계기사 12면 [연합뉴스]

운영 구상을 발표하는 자리다. 트럼프는 지난해 3월 4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한 적은 있지만, 국정연설은 집권 2기 출범 후 처음이다.

이날 연설에서 이란을 향해서는 군사력을 쓸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트럼프는 “미군은 지난해 ‘미드나잇 헤머’ 작전으로 이란 영토를 공격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파괴했다”며 “하지만

그들은 다시 사악한 야망을 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지만, 그들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역대 최장 기록인 108분간 이어진 연설의 대부분은 정책 성과를 자찬하는 내용이였다. 트럼프는 “미국이 어느 때보다 더 크고 훌륭하고 부유하고 강해져서 돌아왔다”며 “지금

미국의 황금기”라고 했다. 또 “우리는 1년 만에 누구도 본 적 없는 변혁을 이뤘고 시대를 초월한 전환을 이뤄냈다”며 “우리의 적들은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붉은 넥타이에 성조기 배지를 달고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들을 가리키며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말하겠다. 저 사람들

은 미쳤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연설 시작 3분이 채 지나지 않아 ‘흑인은 유인원이 아니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던 민주당 앨 그린 하원 의원이 퇴장 조치를 당했다. 이민자 문제에 대한 연설 도중에는 소말리아 출신의 일한 오마르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대표로 야당 반박 연설에 나선 에비게일 스펀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그들(트럼프 행정부)은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생활비를 더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리얼리티 프로그램 스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요소들을 TV쇼 형식으로 구성해 극적인 효과를 최대화했다. 연설 시작 무렵 트럼프 대통령이 TV쇼 사회자처럼 “자 들어오세요 여러분”이라고 외치자 의회 2층 중문이 열리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금메달 목에 걸고 입장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선수단에 기립 박수를 보냈다.

김형구·강태화 특파원

## 한달 넘게 해외 머물면 생활보조금 바로 끊긴다

사회보장국(SSA)이 직접 해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수급자에 대한 감시 논란은 물론,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생활보조금(SSI)이 중단되는 기존 규정이 앞으로는 자진 신고 형태가 아니어도 출입국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한인 시니어들의 주의를 요구된다.

SSA는 올해 1월 ‘해외 여행 증거-해

외 여행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할 때 국토안보부(DHS)가 보유한 출입국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SSI 수급자의 경우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자진 신고나 의심 사례에 한해 조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SSA가 출입국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SSA는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기 위

한 준비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SSA에 따르면 사회보장 혜택 수급자는 약 750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500만 명이 SSI 수급자(2025년 12월 기준)다. 은퇴연금 수급자, 장애 수급자, 저소득층 생계 보조 수급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인사회에서는 그동안 SSI 수급자가 해외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시 지급이 중단되는 규정을 두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모른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출입국 기록이 SSA 측과 연계되면서 장기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지원금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정부 감시 확대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개인의 해외 이동 정보가 연방기관 간 공유되는 구조가 공식화됐기 때문이다.

싱크탱크 예산정책우선센터(CBPP)

는 데이터 공유 협정과 관련해 DHS가 사회보장번호(SSN)를 신청했던 5억 명 이상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데이터는 오래됐거나 오류가 포함됐을 수 있어 오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한인타운의 SSI 수급자 김모(78)씨는 “정부가 너무 심하게 감시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며 “생활비가 달린 문제라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이민 단속이 아니라 사회보장 수혜 자격 관리 목적이란 것이 정부 설명이다. 강한길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풀변지매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WWW.UMNLOAN.COM

##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15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가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Lender Licensed States (VA, MD, DC,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대표전화: 703-204-0022 | 703-268-3954



CEO **손여 Sean H Yio**

NMLS #: 262952 / M.B.A., MS Finance  
NMLS #: 2425871 (회사)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 트럼프 “민주당은 미쳤다”...미국을 좌우로 나눈 ‘TV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워싱턴 연방 의회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위치한 민주당 의원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미 전역으로 생중계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108분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침묵’으로 항의하거나 연설 중 자리를 떴고,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민주당 소속 앨 그린(텍사스) 하원의원이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흑인은 유인원이 아니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그는 연설 시작 3분만에 퇴장당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민주당 ‘악올리기’...작정한 ‘갈라치기’?**  
붉은 넥타이에 성조기 배지를 달고 입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과 셀카를 찍으며 여유를 보였다. 그리고는 연단 맨 앞에 있던 대법관 4명과 악수를 나눴다. 이중 3명은 지난 20일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의문하거나 공개 설전을 벌일 거란 관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황금기”라고 말했다. 연설 시작 3분이 채 지나지 않아 ‘흑인은 유인원이 아니다’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던 민주당 앨 그린 하원의원이 퇴장 조치를 당했다. 쫓겨나는 그린 의원을 향해 공화당은 일제히 ‘미국(USA)’을 연호했다. 그린 의원의 행동은 비락 오버바 부부를 원숭이로 묘사한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었다. 자화자찬성 연설은 추가 상황으로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패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통과시키자”며 민주당이 요구해온 법안에 힘을 실

었다. 여러등절한 민주당 의원들이 기립 박수를 보내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기립 했느냐”며 “넌시 펠로시가 여기에 있다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일어나 달라”고 했다. 주식거래로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민주당 소속의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비난하기 위해 자신 역시 반대해왔던 법안을 의도적으로 꺼냈을 가능성이 있다. CNN은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은 제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은 반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30여명이 연설 보이콧을 선언하자 참석에 대해선 자율에 맡기고 의회 내에선 최소한의 격식을 지키는 의미의 ‘침묵 시위’ 전략을 짜왔기 때문이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불법 이민자가 아닌 미국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면 기립해 달라”고 요청한 뒤 오마르 의원 등을 향해 “기립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오마르 의원은 좌석에 앉은 채 “당신들이 미국인들을 죽였다”고 외치며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단속 요원들의 총에 맞아 미국인 2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맞받아쳤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마르 의원과의 공개 설전을 거치며 미국인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선 아무런 유감 표명 등을 하지 않고 불리한 주제를 두루뭉술 넘어갔다. **불리한 주제 최소화...관세 3분·엡스타인 0분**  
이러한 전략은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약점이 된 관세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됐다. 현지 언론은 이날 연설에서 관세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 언급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정작 관세 관련 언급은 3분에도 미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면서도 “관세는 완전히 승인되고 검증된 법적 근거 아래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의 모든 나라와 기업들이 이미 맺은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한 상황에서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진영의 불안을 다독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 폭발적 이슈로 떠오른 ‘엡스타인 의혹’은 물론, 취임 이후 “8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취임 당일 끝내겠다”고 장담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폭격을 통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던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 발언을 하는데 그쳤다.

**TV쇼 출신 노하우...‘애국심 마케팅’에 초점**  
리얼리티 프로그램 스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요소들을 TV쇼 형식으로 구성해 극적인 효과를 최대화했다. 연설 시작 무렵 트럼프 대통령이 TV쇼의 사회자처럼 “자 들어오세요 여러분”이라고 외치자 의회 2층 중문이 열리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입장했다. 꿈쩍하지 않던 민주당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선수단에 기립 박수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 정책 발표 중간중간 관련 초대자를 직접 소개했고, 특히 초당적 지지를 받는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대한 훈장 수여 행사를 반복적으로 배치했다. 여기엔 한국전 참전 용사이자 해군 전투기 조종사인 100세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대위도 포함됐다. 이밖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과 지난해 텍사스 홍수 때 165명을 구조한 구조 대원에게도 훈장을 수여했다. 연설 중엔 마두로 정권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엔리케 마르케스 전 베네수엘라 국가선거위원회 부위원장을 가족과 상봉시키는 행사를 직접 진행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 노스캐롤라니아주 한 전철 안에서 노숙자의 공격을 받아 숨진 우크라이나 난민 이리나 자루츠카의 가족을 연설 현장에 불러 위로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 전국 홍역 확진 982건...CDC “백신 접종률 하락이 부채질”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행 지속 DC·북버지니아도 노출 정보**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홍역환자가 급증하면서 전염병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 19일까지 전국 23개주에서 홍역 확진 982건이 보고됐다. 이는 1991년 이

후 최다 기록으로 작년 총 확진 건수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지역적으로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6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타 117건, 플로리다 64건 등을 기록했다. 버지니아 보건부(VDH)에 따르면 워싱턴 DC와 북버지니아에서도 누적 확진 10건이 보고됐다. DC 보건국은 이들이 전염 가능 기간에 공항,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정황이 있다며 노출 가능 장소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당국은 홍역이 공기 전파로 확산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환이라며, 확진자가 머문 장소에 일정 시간 머문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CDC는 이같은 홍역 확산 배경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방접종률 하락을 지목했다. 실제로 킨더가든(유치원) 연령대 MMR(홍역·볼거리·풍진)백신 접종률은 팬데믹 직전(2019-2020)에는 95.2%였지만, 현재는 92.5%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백신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 확산과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접종 기피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등 여러 주가 자녀의 공립학교 입학 시 ‘백신 접종이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된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백신 접종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접종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 날씨 (°F)**

27일(금)	52-32	☁	2월(월)	34-26	☁
28일(토)	62-38	☀	3일(화)	38-33	☁
2월 26일(목)	43-28	☀	1일(일)	53-26	☁
			4일(수)	52-35	☀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SALE** **특점**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장 3½

**RENT** **특점**  
기차역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2,900**  
차고 2, 방 3, 화장 2.2

**우리아메리카은행 첫번째 금융**

**우리아메리카은행 센터빌 지점 에서 Full-Time 텔러를 찾습니다!**  
\*본 채용은 미국 내에서 비자 후원 없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고객을 가장 먼저 만나는 당신, "우리아메리카은행의 얼굴"이 되어주세요!**

의료보험 / 유급 휴가 (Paid Time Off) / 401K 퇴직연금 등  
다양한 복지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커리어를 시작해보세요. 지금 지원하고, 우리와 함께 성장하세요!

이력서는 [hr@wooriamericabank.com](mailto:hr@wooriamericabank.com)으로 송부 바랍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출신 국가, 연령, 장애 여부, 군 복무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존중하며, 모두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12)244-3000 (ext.6654) 혹은 [hr@wooriamericabank.com](mailto:hr@wooriamericabank.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우리아메리카은행 센터빌 지점**  
13832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Tel : (703)988-9555

**WOORI AMERICA BANK**

우리아메리카은행 본점은 330 5th Avenue, New York, NY 10001에 위치해 있습니다.

# 센터빌 한인타운 주택 폭발 '가스 누출 원인' 확인

플라스틱파이브 일부 제거  
DC연구소, 정밀 검사 착수  
30일 내 예비 보고서 발표

지난 주 발생한 센터빌 한인타운의 한 주택의 폭발 화재 사건의 원인이 마침내 밝혀졌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케일 폰드 코트와 벨 플레인스 드라이브 교차로 부근에서 압력 테스트 중 공기가 누출된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파이프 일부를 제거하여 검사를 위해 워싱턴DC에 있는 연구소로 보냈다.

NTSB는 24일 "합동조사팀은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지역의 주변 배관 시스템에 대한 추가 압력 테스트를 워싱턴가스에 지시하고 감독했는데, 다른

누출의 증거는 발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누출 원인이 확인됨에 따라 NTSB는 지난 15일 14300 케일 폰드 코트에 있는 단독 주택을 파괴한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폭발 화재로 인해 집 거주자 한 명과 이웃 주민 한 명을 포함해 두 명이 부상을 입었고, 페어팩스 카운티 소방구조대는 인근 워싱턴가스 파이프라인 중 하나에서 천연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46가구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24일 현재 워싱턴가스와 페어팩스 소방국은 대피했던 주택 중 19채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가스 농도가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주민들이 귀가와 가스 공급 재개를 허용했다.



센터빌 주택 화재 인근 지역을 관계자들이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워싱턴가스는 주민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시스템 고장의 원인이 된 누출 지점을 확인하고 수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피 명령이 내려진 19

가구에 가스 공급을 재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재민들의 숙박비도 계속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주 열린 주민회의에서 주민들은 15일 아침 천연가스 냄새가 난다고 신고 전화를 했고, 워싱턴가스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굴착 작업을 하던 중 집이 폭발했다고 NBC4가 보도했다.

NTSB는 향후 30일 내에 예비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종 보고서는 12-24개월 내에 완성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대피로 인해 호텔이나 임시 숙박비가 발생한 주민들은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신청은 이메일(ombudsman@washgas.com)로 하면 되고, 모든 환급은 3월31일까지 접수되어야 한다. 김성환기자

## '그녀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다'

DC 납치극 꾸민 일당 체포  
석방 몸값 500달러 요구

워싱턴 DC에서 납치극을 꾸며 금전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3명이 기소됐다. 23일 메트로폴리탄경찰(MPD)은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에 거주하는 아시아 코이(34)가 공갈 협박 사건과 관련한 세 번째 용의자로 체포되었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작년 12월 시작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2025년 12월 4일 오후 6시쯤, 용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녀의 친구인 산테 샌더스(에칭 '테이')가 여성보호소에서 납치되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약 8개월 동안 친구로 지내며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다. 샌더스는 몇 달 전에 워터에서 나왔지만, 피해자에게는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경찰 보고서에 의하면 용의자들은 피해자의 석방 대가로 500달러의 몸값을 요구하며, 손발이 묶이고 입이 막힌 피해자의 친구 사진을 공유했다.

샌더스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샌더스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누군가가 "그래, 네가 아무것도 안 도와줬으니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겠네. 한 시간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잘가."라고 답장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파트 건물의 불라인드가 몸값 요구 사진에 나온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다. 얼마 후, 경찰과 형사들은 피해자의 친구를 무사히 발견했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친구가 다른 두 명과 함께 금전을 얻기 위해 납치극을 꾸몄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하루 뒤인 2025년 12월 5일 경찰은 워싱턴DC에 거주하는 산테 단컨 샌더스(36)와 노르디아 코이(42)를 공갈 혐의로 체포했고, 2026년 2월 19일 아시아 코이를 체포했는데, 그녀는 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환 기자

## AI 관련 법안 대부분 2027년까지 보류

연방지원 불확실

버지니아 의회에 상정됐던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상당수가 정치적·재정적 이유로 2027년까지 보류됐다.

주 하원의 통신·기술·혁신 위원회는 최근 대다수의 AI 관련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연방 정부의 광대역(broadband) 관련 예산 지원 축소 가능성 등 재정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연방 지원이 줄어들 경우 주 정부 차원의 새로운 규제 도입과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대형 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AI 규제가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강한 로비를 벌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보류된 법안 상당수는 주로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생성형 AI가 만든 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에 AI제작물 표시 의무화(HB 2554), 채용·대출·의료 등 고위험 AI에 대한 차별 방지와 위험 평가 의무화(HB 2094) 등이 핵심 쟁점 법안이었다. 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이 폐기된 것은 아니며 2027년 회기에서는 재논의 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내년 정치·재정 환경에 따라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AI인프라의 핵심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금 혜택 및 전력 공급 관련 논의는 여전히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김윤미기자

## 한국대사관영사부순회영사업무일시

주미한국대사관 영사부는 오는 3월 7일(토) 메릴랜드 델마바(7841 Rockwalkin Rd, Hebron MD 21830)

에서 순회영사업무를 진행한다. 업무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다. 접수가능 업무는 재외국민 등록을 비

롯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과 여권 신청, 공증 및 영사확인,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신고 등이다. 업무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지참한 후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

는 현금만 가능하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미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usa.mofa.go.kr)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 순회영사는 3월 21일(토) 버지니아 페니슬라에서 진행된다. (문의: 202-939-5653 대사관 영사부, 안내: 410-422-3375 델마바 한인회) 홍알벤티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따로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대사(사) 영양과 교수/강사  
- 성동중의대학 중의과박사  
- 임상 25년 경력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http://chaiorientalmedicine.com/

## 메릴랜드 상록회 부설 상록대학

# 2026년 봄학기 개강안내

- 개강 일시** 2026년 3월 3일(화) 오전 10시 30분
- 교육 장소** 상록대학 강의실
- 교육 내용**
  - 기본과목: 초급 영어, 영어 회화, 컴퓨터 초급, 중급
  - 취미과목: 스마트폰, 탁구, 아크릴, 키보드, 통기타, 등산, 합창반, 종이 접기, 춤바, 문예반, 라인댄스, 시사반, 근육운동, 디지털 색소폰
- 특강** 성경과 과학, 세계경제, 정치, 문화, 건강, 문학, 법률
- 등록비** 일반학과 및 컴퓨터: \$80/15주  
통기타 초급, 중급, 디지털 색소폰, 키보드: \$100/15주
- 특강 강사님** 김면기, 김천신, 노영찬, 박찬모, 송수, 안혜영, 오인환, 유양희, 유영익, 이은애, 이희민, 정영훈, 정현숙, 조관영, 홍기협
- 상록회비** 년회비 \$50 (년 1회, 1월~12월)

학과일정 스케줄은 상록대학의 여타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월	월요일 등산 (오전 10:00 ~ 오후 3:00)					
화	10:00 조회	10:30~11:30	11:30~12:20	12:20~1:00	1:00~2:00	2:00~3:00
		영어 회화	근육 운동	점심	영어 초급	탁구
		컴퓨터	탁구		스마트폰	
		탁구			종이접기	
목	10:00~11:00	11:20~12:20	12:20~1:00	1:00~2:00	2:00~3:00	
		춤바	특강	점심	통기타반 중급	
		탁구			탁구	
금	10:00~11:00	11:20~12:20	12:20~1:00	1:00~2:00	2:00~3:00	
		라인댄스	합창	점심	아크릴	
		문예반	탁구		시사/키보드	디지털 색소폰
		탁구			탁구	

상록회원 특혜: 점심 제공, 관광 여행, 소셜 상담

주소 : 세계로 교회 / 상록대학 4401 Muncaster Mil Road, Rockville, MD 20853 / 웹사이트 : kascamd.org

메릴랜드 상록회 회장 이광운

문의전화 : 301-438-7304, 240-429-8575  
이메일 : kascamd@gmail.com

\*시니어 교육에 관심이 있어  
기능 기부하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 저소득주택 실제 착공은 고작 15%

### 3만2838가구 중 4993만 공사 "시정부, 성과 부풀리기 치중"

LA시가 저소득층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성과 부풀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축 계획 승인 건수만 늘었을 뿐 실제 착공 현황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23일 통계 전문 매체 크로스타운이 LA시 공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행정조치 1호(이하 ED1)에 따라 건축 계획 승인을 받은 저소득층 주택은 총 3만2838가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착공 허가를 받은 가

구는 4993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승인 건수의 15% 수준이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지난 2일 ED1을 통해 3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빠르게 추진했으며, 이 가운데 6000가구는 이미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배스 시장장은 크로스타운 측에 "6000가구가 공사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으나, 해당 수치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크로스타운은 "시정부가 성과 부풀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거비 부담과 노숙자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주택뿐 아니라 LA시 전체 주택 건설도 문제로 지적된다. 크로스타운은 랜드(RAND) 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LA시의 주택 건설 비용은 텍사스주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고 전했다.

여기에 2023년 LA에서 시행된 맨션세(Measure ULA)가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도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신규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리카한 거주 랜드마크 그룹 대표는 "맨션세를 비롯해 LA시에서 또 다른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위협까지 감당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김경준 기자



개빈 뉴섬(왼쪽) 주지사가 지난 1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자신의 회고록 북 투어 행사에서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시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NBC4 캡처]

# "나도 SAT 점수 낮았다"

개빈 뉴섬 거주 주지사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한 행사에서 자신의 낮은 SAT 점수와 독해 능력을 언급하며 흑인들에게 "나도 여러분과 같다"고 말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논란이 된 발언은 뉴섬 주지사가 지난 1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자신의 회고록 '영 맨 인 어 허리(Young Man in a Hurry)' 북 투어 행사에서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시장과 대화를 나누던 중 나왔다.

뉴섬 주지사는 흑인 청중들을 향해 "나는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다"며 "SAT도 960점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설문을 읽는 걸 본격적 이 없을 텐데 나는 연설문을 읽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섬 주지사는 학창 시절 난독증 진단을 받았었다.

이러한 발언은 흑인들의 낮은 학업 성취율을 자극하는 내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

산됐다. 유명 인플루언서 계정인 '엔드 워키키니스(End Wokeness)'에서는 조회 수가 2000만 회를 넘길 정도다.

유명 흑인 여성 래퍼 니키 미나즈는 "그가 흑인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식은 자신이 멍청하고 글을 못 읽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말투까지 의도적으로 느리게 바꿨다"고 비판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66만 명 이상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립스오브톡(LibsofTikTok)'은 "민주당과 BLM은 이러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왜 규탄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 역시 "기대치를 낮춰버리는 전형적인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 측은 "주지사는 수년간 공개 석상에서 동일한 발언을 해왔고, 보수 진영 인사들과의 대화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논란에는 침묵하던 이들이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준 기자

# LA, 비무장 위기대응팀 상설화

### 정신건강 등 저위험 신고시 상담 전문 인력 우선 투입

LA시가 정신건강 위기 신고에 경찰 대신 전문 인력을 보내는 '비무장 위기 대응팀'을 영구 운영하기로 했다.

LA시의회는 24일 관련 안건을 12대 0으로 통과시키고 해당 시범 사업을 영구화하기로 했다. 이는 911로 접수된

신고 가운데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경찰 대신 상담·치료 인력이 출동하는 방식이다.

LA시는 중앙 통합 디스패치 시스템(centralized dispatch system)을 구축해 신고 유형에 맞는 대응팀을 보내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에는 정신·행동 위기, 노숙 관련, 안부 확인, 현장 갈등 중재 등 사회복지 성격의 사건이 포함된다.

시의회는 무장 경찰을 비폭력 신고에 보내는 것이 법적 책임과 거액 합의금 위험을 키운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경찰 총격 사건의 35%가 정신건강 위기 상황과 관련됐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LA시 경찰노조(LAPPL)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비폭력 신고를 비무장 인력이 맡으면 경찰이 강력범죄 대응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한길 기자

# 연쇄 아동 성폭행범 가석방에 지역사회 '발칵'

### 사탕으로 유인해 뭍쓸 짓 당시 4~7세 피해자들 절규

남가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연쇄 아동 성범죄자가 가석방 승인을 받아 지역사회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KTLA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앨런 펜스턴(64·사진)은 1999년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 아동 납치 및 성폭행 16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그가 1995년부터 1996년 사이 새크라멘토 교외 주택가에서 집 밖에서 놀던 4~7세 어린이들에게 접근해 사탕과 장난감으로 유인한 뒤 차량에 태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LA타임스는 당시 재판부가 펜스턴을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괴물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그는 25년형 이상 종신형 3건과 추가 20년형을 선고받아 사실상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낼 것으로 여겨졌던 인물이다.

가주 교정국(CDCR) 수감자 기록상 펜스턴은 1999년 5월 10일 형기를 시작했으며 2021년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2022년 5월 한 차례 가석방이 거부됐지만 2025년 9월 심사에서 승인됐다. 개빈 뉴섬 거주 주지사는 이 결정을 가석방위원회 전체 재심에 회부했으나, 최종적으로 가석방이 확정됐다.

펜스턴은 사형수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수형자가 아니어서 고령자 가석방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됐다. 이 제도는 50세 이상이면 최소 20년 이상 연속 복역했거나, 60세 이상으로 25년 이상 복역한 수감자에게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한다. 2026년 현재 64세인 그는 27년간 복역해 요건을 충족했다.

당시 4세였던 피해자 중 한 명은 "그가 다시 거리로 나오는데 받을 것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펜스턴을 "괴물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전 새크라멘토 카운티 검사장 앤 마리 슈버트는 가주 교정국에 서한을 보내 펜스턴을 '성폭력 고위험 범죄자(Sexually Violent Predator)' 프로그램 대상으로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공공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도소 대신 주립 병원에 수용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아동 대상 흉악 성범죄자의 출소를 둘러싼 사회적 불안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조두순 사건처럼 중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가 수십 년 뒤 출소하는 상황에 대해 형벌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살인미수 전과 이민자가 추방에 앞서 가주 주지사의 사면 조치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송운서 기자



영 김 선거 출마 서류 제출 영 김(공화당·가주 40선거구)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20일 선거관리국에 출마 서류를 제출하며 선서하고 있다. 2021년부터 의정활동을 이어온 3선 의원인 영 김은 선거구 재조정 이후 2023년부터 가주 40지구(오렌지·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 카운티 일부)를 대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는 2026년 6월 2일, 본선은 11월 3일 실시된다. [페이스북 캡처]

REALTY ONE GROUP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koriny

# 승경호 부동산

**사업체 & 상가 매물 안내**

**세차장 사업**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 구입하거나 매물 주시면 구입/매매 헤드림니다 문의 환영합니다.

**베데스타 샌드위치 샵**

임대료 월\$5600, 가게 위치좋고 아담합니다

**고급 사무실 임대**

창고 자리 전문 | 식당/ 리테일 자리 전문

**투자용 상가 건물**

· 매매가: \$8,000,000 · 연 순수익: \$520,000 (Cap Rate 약 6.5%)  
· 임차인: 총 7개, 모두 5년 이상 장기 계약 중

**비엔나 NEW 싱글**

\$2,680,000

방 6, 화 5.5, 4218 SqFt. 아주 좋은 위치, 메디슨 학군

**비엔나 NEW 싱글**

\$2,799,888

방 6, 화 6.5, 5133 SqFt. 비엔나 ES, 모던 럭셔리, 아주 좋은 위치

**비엔나 NEW 싱글**

\$2,499,900

방 7, 화 7.5, 4425 SqFt. 2026 가을 입주 메인레벨에 풀베쓰와 방이있는 밝은 집, 메디슨 학군

**비엔나 NEW 싱글**

\$2,499,900

방 7, 화 7.5, 5324 SqFt. 2026 가을 입주 수영장과 아웃도어를 위한 자리, 메디슨 학군

**비엔나 NEW 싱글**

\$2,649,000

방 6, 화 6.5, 4791 SqFt. 꼭 보셔야 할 집 완벽한 위치에 오픈 컨셉 디자인, 백야드 풀 가능

**“신축 주택은 주거 성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기성 주택보다 면밀한 관찰이 요구됩니다. 마감재 이전의 시공 상태부터 각종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까지, ‘새집’이라는 상징성보다 ‘건축을 본연의 완성도’에 집중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문가보다 더 전문적으로 봐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만만치 않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그룹 수나이더팀 대표  
“내 집 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 집 장만' 발행인**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승경호**

www.dwellwashington.com

부동산 전문 소식지

# “두 자녀 남긴 한인 참전용사 돕자”

### 총기 난사 사건 피해자 이경창씨 한인사회 추모, 모금페이지 개설

텍사스 샌안토니오 후카 라운지 인근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으로 숨진 한인 이경창(영어명 지미)씨의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시작됐다.

이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주한 미군으로도 복무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현재 샌안토니오 지역 한인 사회와 지인들을 중심으로 추모와 지원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씨의 유가족은 최근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비극적 상실 이후 KC 가족을 돕자(Help KC's Family After Tragic Loss)’라는 제목의 모금 페이지(www.gofundme.com/f/help-kcs-family-after-tragic-loss)를 개설했다. 모금액은 이씨의 아내와 두 자녀(12세·3세)의 생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게시글에서 유가족은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가족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다”며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그를 잃으면서 가족은 정서적 고통뿐 아니라 유



온라인 모금사이트 고펀드미에 개설된 이경창씨의 모금 페이지.

[고펀드미 캡처]

일한 생계 기반까지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어린 자녀가 남겨졌고 어떤 도움이라도 생활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된다”며 모금 동참을 호소했다.

유가족 측에 따르면 이씨는 미 육군에서 14년간 복무했고 상당 기간 한국에서 근무했다. 이라크에도 파병된 참전용사다. 기독교 신자로 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였으며 사교성이 좋아 주변에 친구가 많았다. 무엇보다 가족을 최

우선으로 여긴 가장이었다.

유가족은 “가족은 경제적 버팀목을 잃었을 뿐 아니라 아침부터 밤까지 삶에 웃음과 즐거움을 만들어 주던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었다”고 전했다.

지인들은 이씨를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성격의 인물로 기억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나섰다. 친구들과 사이에서 ‘형제 같은 친구’로 불린 것으로 전

해졌다.

앞서 총격 사건은 지난 18일 오전 1시 24분쯤 텍사스 샌안토니오 지역 ‘미스트 후카+울트라 라운지’ 앞에서 발생했다. 업소 내부 다툼으로 퇴장 조치된 남성이 일행과 함께 차량을 타고 돌아온 뒤 야외 파티오에 모여 있던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현장에서는 약 20발의 총성이 연이어 울렸고, 인근에 있던 이씨와 데릭 대손 브라운(27)이 상체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사건 직후 촬영된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확산됐으며, 목격자들은 “문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총성이 들렸고 뒤돌아봤을 때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용의자 2명을 체포해 중범죄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유가족은 또 같은 사건으로 숨진 다른 피해자 가족에게도 애도를 전하며 관련 모금 정보가 있다면 공유해 달라고 밝혔다.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다른 가족에게도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 덧붙었다.

강한길 기자

## 글로벌 관세 10% 발효 24일부터 150일 시행

미국이 전 세계 국가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가 24일 오전 0시 1분(동부시간 기준)을 기해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기존 무역 합의 번복을 시도할 경우 가혹한 보복을 가하겠다는 ‘관세 드라이브’ 강행의 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발효된 글로벌 관세 세율은 일단 10%다. 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 20일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이를 15%로 인상한다고 했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10%로 발표된 관세는 새 포고문 서명 절차 등을 거쳐 15%로 상향될 전망이다.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24일부터 전 세계에 일괄 적용하기 시작한 글로벌 관세를 법정 최장 기간인 150일간 유지해 시간을 벌고, 그 사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 국가안보 위협 판단 시 품목별 관세 부과를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제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김형구 기자

## 2명 중 1명 “미국 더 나빠졌다”

### 트럼프 2기 민심 여전히 싸늘 각종 정부 역점 정책 부정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연방 의회에서 2기 행정부 첫 국정 연설을 한 가운데, 여론은 국정 운영과 주요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정 전반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더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23일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8512명 중 72%는 경제 상황을 ‘보통’ 또는 ‘나쁨’으로 평가했다.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28%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 중 52%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답했고, 개선됐다고 본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관세 정책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응답자 5명 중 3명(60%)은 관세 인상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37%에 머물렀다.

각종 생활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응답자 중 71%는 의료비 부담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식료품과 소비재 가격(66%), 주거비(62%) 역시 주요 걱정거리로 꼽혔다. 특히 2026 회계연도부터 오바마케어(ACA) 보조

금 지급이 중단된 가운데, 응답자 66%는 연방정부가 모든 미국인의 의료 보장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속 방식에 대한 반감이 두드러졌다. 응답자 72%는 이민 단속 요원이 외모나 사용하는 언어를 근거로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또한 61%는 단속 요원이 얼굴을 가리는 복면을 착용하는 것 역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멕시코 국경에 대한 군 병력 배치에 대해서는 62%가 찬성해 국경안보 강화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보였다. 이는 본지가 지난 1월 한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트럼프 2기 정부 평가’ 설문조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도 한인 응답자의 52.1%가 트럼프 대통령의

### 시민 체감 경제 불안

	매우	다소	합계
의료비	71	21	93
식료품	66	26	92
주거비	62	26	89
전기 요금	51	33	85
일자리 부족	45	34	79
가스 가격	34	34	68
증시 상황	20	38	58

\*성인 대상 설문 조사 2026년 1월 20~26일, 소수점 반올림으로 합계가 다를 수 있음  
자료: 퓨리서치

국정 운영에 대해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이 같은 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응답자 1462명 가운데 55%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

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응답자 60%는 미국이 1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53%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촬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독자가 행복 해진다**

Koreadaily.com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701 Pender Dr. #16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락주 등)  
웨이틀도라방  
300m 뉴타운  
미락주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 치안 불안에 멕시코 선교·여행 주춤

### 방문하러던 한인들 고심 중 국무부, 여행경보 2단계 유지 현지에선 “치안 점차 안정돼”

지난 22일 멕시코 최대 마약 카르텔의 수장 ‘엘 멘초’가 멕시코 정부군에 의해 사살된 뒤 조직원들의 보복 테러가 잇따르면서 치안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와 인접한 남가주의 경우 한인 교회에서는 일일 선교 활동을 잠시 보류하는가 하면, 올여름 북중미 월드컵 등과 맞물려 멕시코 지역 휴가 계획을 세우려던 한인들도 현지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멕시코 한인사회에 따르면 무장한 조직원들이 멕시코 내 여러 주에서 주요 도로를 차단하고 차량과 삼점에 불을 지르는 등 소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영상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가 예정돼 있는 과달라하라 지역에서는 한때 항공편이 취소 또는 지연됐고, 관광객들에게는 현지에서 머물라는 권고가 내려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지난 22일 마약 갱단의 방화 등 폭력 사태로 전정터를 방불케 했던 멕시코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 도심이 24일 한산하다. 평소 관광객과 시민들로 붐비던 도심과 대중교통 이용도 크게 줄어든 분위기다. [Pablo Lemus Navarro/X게정]

LA 지역 최재민 선교사는 매주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재소자를 대상으로 영화 상영 사업을 진행해왔다.

최 선교사는 “이번 주에 티후아나로 가려고 했는데 현지의 한인 선교사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오지 말라고 하더라”며 “현지 교회들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면 이번 사태와 거리가 먼 티후아나 지역도 식당들이 문을 닫

고 평소 붐비던 시내도 한산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월드옥타 멕시코 지회 이종현 이사는 “멕시코시티의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한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한국대사관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관련 공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창선 과달라하라 한인회장도 “일

단 연방정부가 2500명의 군 병력을 추가 배치해 최고 수준의 비상 치안 경보를 발동하고 치안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25일부터는 학교 등교와 경제 활동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단 국무부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멕시코 전반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주의 요망)를 유지하고 있다.

이은주(45·풀러턴)씨는 “올여름 멕

시코에서 한국팀의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만큼 멕시코 여행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잠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상황이 빨리 진정돼 월드컵 같은 빅이벤트도 차질 없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주멕시코 미 대사관·영사관에 따르면 보안 경보에 따라 봉쇄령이 유지됐던 도시들의 조치는 일부 해제됐다. 과달라하라 공항의 경우 운항이 일부 정상화됐으며, 유명 휴양지인 푸에르토 바야르타의 경우 공항에 추가 항공편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24일 전했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상황이 진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보안 전문가들은 일단 장기적 안정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직 CIA 요원 제이슨 헨슨은 24일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멕시코는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다”며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글로벌 보안업체 글로벌 가디언의 정보 책임자 마이크 발라드도 “가까운 시일 내 푸에르토 바야르타나 칸쿤 방문 계획이 있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영 기자

## “안보위해 필요” “살상용 안돼” 킬러AI,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

“국가 안보를 위해 인공지능(AI) 빗장을 풀어야.”(미국 국방부)  
“살상용 무기로는 안 된다.”(앤스로픽)

미 국방부(전정부)와 AI 기업 앤스로픽의 충돌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군사 분야에서 AI를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앤스로픽은 AI 챗봇 ‘클로드’를 서비스하는 회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클로드를 합법적인 군사 작전에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방부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27일까지 답하라는 구체적인 ‘데드라인’도 제시했다. ‘큰 손’ 국방부가 기밀 작전에서 유일한 AI로 채택한 클로

드를 내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국방부는 오픈AI(챗GPT)나 구글(제미나이) 같은 경쟁사로 공급망 교체까지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미국 최대 규모 단일 기술 수요처로 꼽힌다. 공급망에서 특정 회사를 제외하는 건 통상 적대국과 연계한 기업에 적용하는 극단적 조치다. 공급망에서 배제되면 국방 관련 신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을 뿐더러, 다른 정부기관과 계약은 물론 동맹국과 공동 방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아모데이 CEO는 대규모 자국민 감시나 자율 살상 무기에의 활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방부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앤스로픽은 오픈AI 출신이 모여 2021년 설립한 회사로 ‘안

미 국방 “군사작전 AI 빗장 풀어야”  
제조사는 “미국인까지 감시” 거부  
초유의 안보·윤리 법적 분쟁 예고

전과 윤리’가 핵심 가치다. 보안과 정확도에 감정이 있어 기업용 AI 시장에서 점유율 1위다.

같은 발달은 지난달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군사 작전이었다. 당시 국방부는 클로드와 팔란티어의 플랫폼 등을 작전에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군인 등 다수 사상자가 나오자 앤스로픽이 AI 기술의 오남용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제동을 걸었다.

국방부는 AI를 정보 분석, 표적 식별, 작전 계획 수립 등 전력 증강의 핵

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 모든 군사 용도로 AI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이유다. 미 정치전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개별 상황마다 앤스로픽과 협상할 수 없을 뿐더러, 긴박한 작전을 펼치는 도중 AI 기능이 갑자기 차단될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앤스로픽 만큼은 아니지만, 경쟁사들도 ‘살상 목적의 AI 직접 사용 금지’ 같은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기술 오남용에 따른 법적 책임과 평판 리스크(위험)를 우려해서다. 하지만 국방부가 민간 기업의 윤리 강령보다 군사적 효율성을 앞세울 경우,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AI 생태계가 ‘안보 우선주의’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국가 안보와 기업 윤리가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법적·윤리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앤스로픽은 이날 ‘책임 있는 확장 정책(RSP) 버전 3.0’을 공개했다. 기존 RSP에선 클로드가 위험하다고 분류될 경우 개발을 늦추겠다고 했는데, 경쟁사보다 충분한 기술적 우위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엔 개발을 늦추지 않겠다는 식으로 바꿨다.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극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짚었다. 김기환 기자

**중앙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각별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i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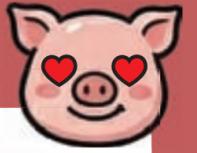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irlawpllc.com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FEB. 26<sup>TH</sup> - MAR. 5<sup>TH</sup>, 2026



3월 3일



**3겹살 데이**

Pork Belly Day!

LIMIT 2 PKG

**Frozen Pork  
 Single Rib  
 Belly for BBQ**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FAMILY PACK



**\$ 3.99**  
LB



**HAIDILAO  
 Hot Pot  
 Set**  
 하이디라오  
 휘귀 세트



**\$ 25.99**  
SET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 사법까지 노린다, 절대권력 치닫는 여당

## 민주당 '일일 1법안' 입법독주

상법개정안 처리 뒤 법외곡죄 상정 내달3일까지 사법 3법 등 일방처리 법안 통과면 거여 견제 주체 실종 전문가 "정치가 재판결과 좌우할 것"

162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상법 개정안 의결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걸친 입법 독주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의 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민주당은 곧바로 '법외곡죄'(형법 개정안)를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외곡죄 저지를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뒤 국회법에 따라 강제 종료하고 26일 오후 법외곡죄를 의결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는 매일 예고돼 있다. 27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8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3월 1일 국민투표법 개정안,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안, 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일까지 최소 '일일 1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다.

이번에 의결되는 법안들 가운데 핵심은 사법부의 힘을 빼는 이른바 '사법 3법'(법외곡죄 도입,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리를 왜곡한 판사·검사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외곡죄 도입 ▶확정된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도록 한 대법관 증원법 등이 골자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가운데)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25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전국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4시간45분에 걸쳐 회의를 열고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법외곡죄는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재판소원은 재판 확정 사실적 지언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회의에서 한 법관은 "사법 후진국으로 갈 수도 있는 길목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국무조정실 내 추진단을 만들어 검토·조율하는 '검찰개혁'과 달리 사법

3법이 너무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검찰보다 못한 취급"이라며 불쾌감을 표하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2월 안에 사법 3법을 의결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삼권분립의 무게추는 정부·여당으로 쏠릴 전망이다. 이미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힘이 빠지기에 때문이다.

범여권 190석에 육박하는 압도적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거머쥔 정부·여당을 견제할 주체는 사실상 존재하지 못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재판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결국 정치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도는 허상이라는 여당 대표의 인식, 일방 독주에 열광하는 강성 지지층

은 민주당이 절대권력을 향해 질주할 수 있는 동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주변에 "지방선거는 어차피 51대 49 싸움이다. 우리 당을 찍어줄 이들을 투표소에 확실히 이끌면 우리가 이긴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50.9%)이 같은 해 대선 투표율(77.08%)이나 2년 뒤 총선 투표율(67.0%)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큼, 지지층 결집만으로도 충분히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X(옛 트위터)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며 입법 독주에 힘을 실어줬다.

여권 독주를 견제해야 할 제1야당 국민의힘은 '윤여거인'으로 자멸하며 오히려 민주당에 탄탄대로를 깔아주고 있다는 평가다. "기본적으로 과점 시장인 한국 정치가 야당의 기능 상실로 민주당 독점 시장이 됐다"(윤태근 더불어민주당 정치분석실장)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비판론이 팽배하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저희가 국민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 이제명 정부의 정책, 여당에서 일방 추진하는 법안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대구도 우리가 먹는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경북을 제외한 16개 지역을 이길 수 있다"(박지원 의원)는 민주당과는 정반대 풍경이다.

한영익·최서민·이찬규 기자

## 법외곡죄 상정 30분전 또 뺨질... 추미애 반발에 정청래 "미안"

### 법사위 처리법안, 의총서 수정

형사사건만 적용, 요건도 구체화 여당 "위헌소지 최소화" 당론 채택 강경파 "느닷없는 결정, 잘못" 반발 전문가 "숙의 없는 부실입법 방증"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또 법제사법위원회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상정(오후 4시38분) 약 30분 전에 수정했다. 이번에는 발의 때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법외곡죄'(형법 개정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내란전담재판부 설

치법을 강행 처리 할 때도 본회의 상정 30분 전 위헌성을 제거하는 수정 작업을 거쳐 졸속 입법 논란을 불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회 뒤 "(민사나 행정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던) '법외곡죄'를 형사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며 "당론으로 추진·채택했다"고 밝혔다.

법외곡죄(형법 123조의2)는 형사사건의 당사자를 해할 의도로 범령을 왜곡 해석하거나 증거를 위·변조하는 검사나 판사 등을 처벌하기 위해 민주당

이 신설을 추진한 죄목이다. 법외곡죄 성립 요건은 대폭 수정됐다. 1항 '범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엔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범죄 사실을 자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3항에선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할 경우'를 삭제했다.

그간 사법부와 학계에선 법외곡죄 도입 자체에 반대가 많았지만, 원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의

원은 원안을 고집했다.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가 당 정책위원회에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법사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경파들은 이날 거세게 반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법외곡죄가 통과하면 법원이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일을 거론하며 "형사재판에만 한정하는 것도 반대"라고 말했다.

이후 "판단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백혜련 의원),

"(법 외곡죄) 3항인 '논리와 경험칙' 부분은 법 적용에 논거가 빈약하다"(박법계 의원)는 의견이 제기됐다. 결국 정청래 대표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난상 토론이 어려워 미안하다"며 의결 절차를 밟았다. 김용민 의원은 상정 후에도 "법사위와 사전 조율 없이 느닷없이 수정안이 결정됐으니 당론으로 결정해 따라라는 건 잘못된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정하는 날 수정한다는 거 자체가 그동안 숙의 없는 부실입법이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오소영·이찬규 기자

<p><b>1. 센터빌 타운</b> <b>SOLD \$650,000</b></p> <p>방3, 화2.5, 차고1 RT 28, 66 교통편리, 전부 업그레이드</p>	<p><b>4. 스틸링 타운</b> <b>SOLD \$645,000</b></p> <p>2014년, 방3, 화2.5, 차고2, RT 50/606, Dulles Airport, RT28</p>	<p><b>7. 애쉬번 뉴타운 55+</b> <b>SOLD \$790,000</b></p> <p>방3, 화3.5, 차고2, Elevator</p>	<p><b>황계실 571-239-6054</b></p> <p><b>고객만족 18년!</b>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p> <p><b>매매 / 리스 전문</b>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p> <p><b>부동산전문 브로커</b> <b>GSHwang Realty</b> 🏠</p>
<p><b>2. 애쉬번 타운</b> <b>SOLD \$660,000</b></p> <p>방 4, 화 3.5, 차고2, 최고 학군, RT 267/7, 말라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새집 같은</p>	<p><b>5. 게인스빌 골프 싱글</b> <b>SOLD \$1,060,000</b></p> <p>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p>	<p><b>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마켓 싱글 \$1,699,000</b></p> <p>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 5.5, 차고3, 선룸, 고급 조경,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포우 스위트, 미디어룸, 개인룸, 바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p> <p><b>아이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b></p>	
<p><b>3. 맥클린 콘도</b> <b>SOLD \$389,000</b></p> <p>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p>	<p><b>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b></p> <p><b>Sold</b></p> <p>1.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차고 2</p> <p>2. 매나사스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차고2</p> <p>3. Bristow 55+ single \$750,000 방4, 화3.5 차고 2</p>	<p><b>9. 알디 싱글</b> <b>SOLD \$869,000</b></p> <p>2004년, 방4, 화2.5, 차고2, 전체마루, 국전디선,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p>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AIR PREMIA

# 서울로 가는 새로운 선택 에어프레미아

## 워싱턴 D.C. (IAD) ↔ 서울 (ICN)

주 4회 (매주 월/수/금/일) 운항

편명	출발지	도착지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항요일
YP136	워싱턴 (IAD)	서울 (ICN)	13:20	17:55(+1)	월/수/금/일
YP135	서울 (ICN)	워싱턴 (IAD)	10:00	10:50	월/수/금/일

※ 스케줄은 현지 공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ound-Trip Fares Starting At

# \$1,195



Global Traveler 선정, TOP5 프리미엄 이코노미, 에어프레미아 Wide Premium Class

긴 여정을 위해 설계된 넓은 좌석과 비즈니스석처럼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31년만의 국적사 신규 취항 기념, 공식 대리점 발권 20% 할인**

- 에이스여행사 201-461-0606 •익스프레스뉴욕 201-735-8072 •푸른투어 201-778-4000 •동부관광 718-939-1000
- 씨니여행사 718-353-8800 •가고파여행사 201-302-0820 •워커힐여행사 718-749-3059 •유여행사 718-463-9500
- 동아여행사 212-696-2700 •VIP미래여행사 201-585-0077 •탑여행사 703-543-2322

# 국회 사무처도 “전례없다”는 ‘선관위 비방 처벌법’



우원식 “5·18 정신, 헌법에 담아야” 25일 국회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우원식 의장,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 넷째부터)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벌조항 논란 ‘선관위 허위비방 뎀 10년형’ 담겨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의 강행 처리를 준비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중 선거관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국민투표 자유방해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담겨 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날인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형법상 행정기관 업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려우

며, 공직선거법에도 유사 입법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조항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여당 행정안전위원회가 발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권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공직선거법에 담긴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행안위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해 지난해 7월 발행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도 특정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정도라 지적하며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지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유해성과 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취했다.

아당과 학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 부실 관리만 주장해도 처벌하는 선거독재 입법막 공포 국가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기에 더 자유로운 토론이 오가야 한다”며 “음모론은 처벌이 아닌 공론장을 통해 걸러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한 해당 처벌 조항을 본회의 통과 전에 수정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여당 내 분위기다. 행안위 간사인 윤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해 “이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확실히 넣어야 할 때가 됐다”며 “역사적인 3·1절에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원은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 최소한의 여야 합의 사항만이라도 담아야 개헌의 문을 열자고 주장했다.

박태인·강보현 기자

## ‘비칭형사’ 시작됐다... 오영훈 “면접 직후 하위 20% 통보”

(비정청리계 공천 탈락)

오 제주지사, 사실상 공천 컷오프 “즉시 이의신청, 차차 입장 밝힐 것” 당내 “계파색 엮은 사람인데...”

오영훈(사진) 제주지사가 25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하위 20%’ 대상으로 통보받았다며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 재선에 도전하려 했던 오 지사의 출마 기회가 원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며 ‘컷오프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어제(24일) 공관위 면접 심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이수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선출직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며 “즉시 당에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3~24일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고, 제주지사 후보자 면접에는 오 지사와 위성곤(서귀포)·문대림(제주갑)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3개 지역구를 모두 차지할 만큼 여당 지지세가 강한 제주도는 사실상 경선이 본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에 포함되면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 된다는 게 중론이다.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20% 감점 페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대상인 현직 민주당 소속

제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의원(24%)과 오 지사(22%)는 점진 양상이었고, 위 의원(14%)이 뒤를 이었다.

면접 직후 하위 20% 통보

면접 직후 하위 20% 통보

광역단체장은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 총 5명이다. 이중 1명(하위 20%)이 누가 될지가 관심사였는데, 오 지사 스스로 통보 사실을 밝힌 것이다.

오 지사는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발기인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함께해 온 당에 돌을 던지고 싶지는 않다”며 “공연한 약속으로 당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차차 입장을 밝혀 나가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난 오 지사는 이낙연계로도 불렸지만, 현재는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엷다는 평가가 많다. 21대 국회 땀 강훈식·우상호 당시 의원과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 함께 활동했고, 재야 운동권 출신이 주축인 ‘민주평화국민연대’에도 몸담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낙연 전 대표 시절 행보를 같이했던 많은 의원이 이전 대표 탈당 이후 과감히 친명의로 돌아선 데 비해 오 지사는 그 꼬리표를 떼지 못한 게 이번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 마우리 왓츠 & 단 박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Watts & Park

## “교통사고는 왓츠 &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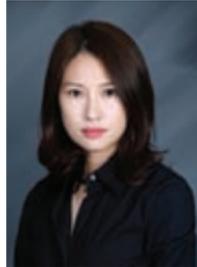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 위 건강도 소화도

## 이제, 동시에 케어하세요!



제도아리  
(자색강황)

발효 양배추  
엑기스

비터멜론  
(여주)

5대  
소화 효소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셀룰라아제  
아밀라아제  
락타아제

NEW



沖縄ガジュツ  
**Okinawa Zedoary**  
with Digestive Enzymes

Dietary Supplement



Made in JAPAN

우메켄 NEW  
오키나와 제도아리(정)



5대 소화 효소로 업그레이드된

## 우메켄 **NEW** 오키나와 제도아리

오키나와 미야코섬 제도아리에 발효 양배추와 여주, 5대 소화효소를 더해 소화를 원활하게 돕고, 지친 위장을 부드럽게 케어합니다.\*

**쓰린 속을 부드럽게, 더부룩함도 시원하게!  
위장은 건강하리, 소화는 빠르리!**

오키나와 우메켄 농장의 최상급 제도아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소화불량과 위통으로 고생하는 분
- 배앓이와 위장 경련이 심한 분
-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신 분
- 위장장애로 트림, 구치가 심한 분
- 식곤증, 식후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분
- 습관적 구토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

888-941-3311 [umeken.com](http://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우메켄  
구입처

■ ANNANDALE • 웰빙모아 (703)256-5500 • 건강마을 (703)354-151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CENTREVILLE • 웰빙모아 (703)830-775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ELLICOTT CITY  
• 롯데플라자 (410)750-9656 • 모드니에 (410)615-6167 • 힐링 마을(443)878-9010 ■ CATONSVILLE • BESETO (410)303-5530 ■ GAITHERSBURG • GREEN COSMETIC (301)926-6307

# 같은 의원인데 진료비 17배 차... 아동 악용한 아동발달치료

**발달지연 실손보험 청구 43% 급증**  
실손청구 가능한 치료엔 가격 올려  
피부과·성형외과 의원도 뛰어들어  
수영강습도 언어치료로 바뀌치기  
“관리급여 포함시켜야 가격 통제”

수도권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발달 지연 때문에 찾아온 다섯 살 아동에 언어치료·신경발달장애치료를 진행했다. 치료를 1년 넘게 이어간 뒤, 어휘력 평가 등에서 ‘정상’, ‘평균 이상’ 평가가 내려졌다. 하지만 정상 발달이 확인된 뒤에도 진단명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이 아동은 8개월 넘게 병원을 더 다니며 불필요한 치료를 받았다.

또래보다 언어·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을 위한 발달지연치료 곳곳에 구멍이 났다.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의 고가 비급여 청구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고무줄 치료비와 불법·비전문기관 운영 같은 문제가 여전히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진료의 반복으로 국민 의료비를 잡아먹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중앙일보가 손해보험사 5곳(메리츠·삼성·현대·KB·DB)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지연으로 지급된 실손 보험금은 2022년 1165억원에서 지난해 1660억원으로 3년 새 43% 증가했다. 특히 1·2차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진료에 대한 보험금이 크게 늘었다. 진료비 급증 배경엔 환자 증가뿐

아니라 불필요한 치료를 부추기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꼽힌다.

언어치료·신경발달장애치료 등은 의료인이 해야 하나, 제도 허점을 이용해 뇌상담사 같은 민간 자격자의 수업 등을 의료인이 한 것으로 꾸며 실손 청구를 하기도 한다. 의료기관 부설센터와 일반 사설 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같은 사람이 동일한 치료를 하되,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 신경외과 병원은 수영 강사가 진행한 수영 수업을 의사·작업치료사가 시행한 수중언어치료로 바꿔 치료 일지에 기재했다가 들롱이 났다. 신의진 세브란스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소아정신과를 수련하지 않은 의사

가 비료인을 고용해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는 건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윤영아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임의로 치료를 진행하면 발달 지연 등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경기도 A 의원은 지난해 9월 다섯 살 여아 대상으로 하루에 신경발달장애치료를 두 차례 진행하면서 각각 17만원, 1만원을 받았다. 치료사만 다르고 똑같은 치료인데도 17배 차이가 났다. 실손 적용이 불가능한 민간 자격자의 치료는 싸게 매기고, 보험 청구가 가능한 의료인 치료의 가격은 올렸다.

지난달 인천의 한 의원은 다섯 살 남아에게 40분 개인 언어치료비로 1만원

을 받았다. 하지만 여럿이 참여하는 10분짜리 그룹 언어치료엔 더 비싼 7만 5000원을 매겼다. 30대 언어재활사 B 씨는 “사짜”로 불리는 비전문 인력이 유입되고, 피부과·성형외과 등 전문 분야가 아닌 병·의원이 실손 적용을 노리며 뛰어들어 혼탁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회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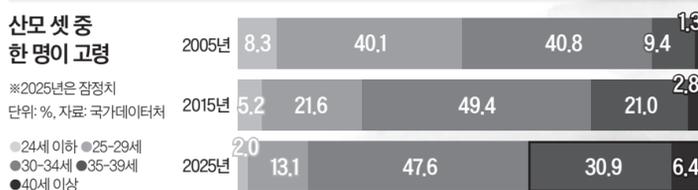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관리급여에 포함해야 가격·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진짜 필요한 사람만 치료를 받아 소비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 들 것”이라고 했다.

정종훈·채혜선 기자

## 15년만에 가장 큰 “응애”... 늦깎이 엄마의 힘

(출생아 증가폭)

**작년 25만명 출생, 1년새 6.8% 증가**  
합계출산율 0.8명대, 4년만에 회복  
35세 넘는 고령산모 출산이 37%  
혼인도 24만건, 3년 연속 늘어  
“2030년 1명대 달성도 가능할 듯”



‘워커홀릭’이던 강모(40)씨는 결혼 2년 차인 지난해 첫 아이를 출산하고 현재 육아휴직 중이다. 강씨는 “일을 잠시 내려놓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결혼한다면 아이는 낳고 싶다고 생각해 왔다”며 “주변에 30대 후반 산모가 많다 보니 ‘노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또 남편이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다는 점도 ‘출산할 결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결혼·출산이 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 폭이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늘어난 혼인 건수를 고려하면 올해도 출산율 반등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6100명 늘었다. 증가 규모는 2010년(2만5000명) 이후 최대다. 증가율(6.8%)로 따지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월별 출생아 수도 18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2만3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747명(9.6%)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9년(2만1228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분기 기준으로도 7분기째 증가 흐름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증가했다. 2021년(0.81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2016년부터 8년간 감소하다 2024년 반등한 이후 2년 연속 늘었다.

결혼·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고령 산모가 늘면서 출산율을 견인하고 있다.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8세로 전년 대비 0.2세 상승했다. 20대 후반 이상 연령층의 출산이 모두 늘었다.

특히 고령 산모(35세 이상) 출생아 비중은 37.3%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증가했는데 이 비중도 역대 최대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10명 중 3명 넘게 엄마가 35세 이상이라는 의미다.

최근 출생아 증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결혼 건수가 늘고, 주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 출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는 지난해 24만여 건으로 전년 대

비 8.1% 증가했다. 2023년 1%, 2024년 14.8%에 이어 3년 연속 늘었다. 월별 기준으로도 혼인 건수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1개월 연속 증가했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변진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데이터처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할 경우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2024년 68.4%로 2년 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비중도 37.2%로 2년 전보다 2.5%포인트 늘었다. 2012년(22.4%) 이후 계속 오르는 추세다.

전망도 나쁘지 않다. 합계출산율 정책 목표인 2030년 1명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합계출산율을 2026년 0.8명, 2031년 1.03명으로 본고위 추계 시나리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43명으로, 0명대는 한국이 유일하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이동성 확대,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 최지호

##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 Ace Acupuncture  
571-438-4644
-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남자 간호보조원 (MA) 채용합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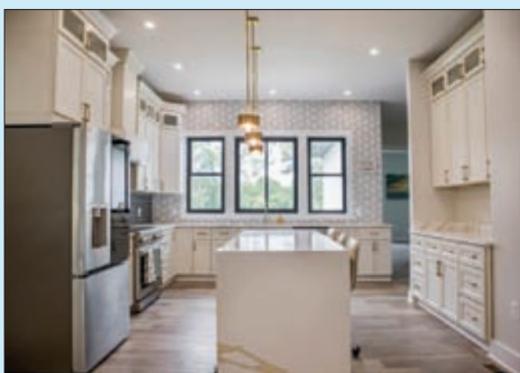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폼

##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 광주특별시장 여수시? ... 행정통합에 꼬여버린 지명

(약칭)

**전남·광주통합법 기반 우려반**  
주소표기 '시' 중복문제 추후 정리  
공무원 채용·복지 혜택 등은 늘어

전남도와 광주광역시 둘을 하나로 묶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법'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일자리·복지·의료 혜택은 늘지만 주(主)청사 선정, 근무지 변경 등 갈등의 불씨도 적지 않다.

25일 광주광역시·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총 413개 조문에 두 광역단체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단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공지능(AD)·에너지·문화 수도 비전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균형발전 등을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남부권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통합되는 광주·전남에 4년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함께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통합특별시장 출범하면 공무원 지역 인재 채용도 대폭 늘어난다. 이미 광주시는 올해 공무원 1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규 채용(375명)의 약 3배 규모다.

복지 혜택도 확대된다.

전남의 출생기초소득(월 20만원), 광주의 청년구직활동수당(월 50만원) 등 두 지자체가 운영하던 복지사업을 모두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두 지역 문화·관광시설도 '지역민 할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별법상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조항에 따라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유치 가능성도 커졌다.

소방체계도 통합되면서 119종합상황실을 통해 광주 전남대병원과 전남 동·서부에 들어설 통합 국립의대 부속 병원 등 3개 권역을 잇는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된다. 수도권처럼 버스전용차로·환승시설·교차로 버스우선통행 등을 갖춘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도입되면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해진다. 무료 환승 확대도 교통비도 줄어든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모두 통합 법안 처리엔 힘을 모았지만, 물밑에선 자기 지역에 주청사를 두려는 등 이해관계가 엇갈려서다. 행정명칭에 대한 혼선 우려도 제기된다. 전남 시(市) 단위 지자체 5곳은 통합 후 주소가 '광주특별시장 〇〇시' 형태로 '시'가 중복돼서다. 김성태 전남도 통합지원팀장은 "주청사 소재지나 '시' 중복 문제 등 세부 사항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후속 논의를 거쳐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무원 조직도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통합된다. 신분은 법적으로 승계되지만, 직제 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과 인사이동은 불가피하다. 인사 교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무지 변경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세부 시행령에 주민 의견을 밀도 있게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인구 317만명

전남과 광주

기존 3개 청사 균형 운영

기존 시·군·구 명칭 체계 유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법  
설치 특별법 추진 타임라인

1986년 11월  
광주광역시, 전남도에서 분리  
(당시 직할시로 승격)

2005년 11월  
전남도청, 광주-무안 남악 이전  
(행정 완전 분리)

2026년 1월 2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광주 통합' 공식 선언

2026년 1월 9일  
이재명 대통령, 광주·전남 단체장·국회의원 청대초청  
"재정·산업·행정 대폭 지원" 약속

## 본회의 통과땐 7월 출범... 주청사 소재지, 특별시장이 결정

6·3 선거서 특별시장·교육감 선출  
공무원은 기존 관할지역 근무 원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법 설치 특별법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법'이 공식 출범한다. 약칭은 '광주특별시장'이다. 인구 317만 명, 지역 내 총생산(GRDP) 158조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다. 행정통합으로 교육·인사·조직·생활권 전반이 바뀌게 된다.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을 1명씩 새로 선출하게 된다.

-지금 사는 행정구역이 바뀌나. "기존 시·군·구 체계는 유지된다. 명칭이나 관할 조정은 특별시 조례로 가능하지만, 대대적인 구역 개편은 예정돼 있지 않다. 다만 순천·여수·목포·나주·광양 등 전남 지역 시(市) 단위 5개 지자체는 주소표기 때 '시'가 두 번 중복된다. 광주특별시장 목포시가 되는 식이다. '시' 중복 문제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후속 논의를 거쳐 정리할 예정이다. 기존 광주광역시 명칭은 사라지고 '광주특별시장'로 부르게 된다. 예를 들어 광산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산구

또는 약칭으로 광주특별시장 광산구가 된다."

-청사는 어디에 두나. "주(主)청사 소재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기존 전남도청(무안), 전남도청 2청사(순천), 광주광역시청(광주 서구)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식이다. 단일 청사 이전이 아니라 분산형 운영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6월 지방선거 때 뽑히는 특별시장이 시의회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무원 인사와 신분은 어떻게 되나.

"통합 이전 임용 공무원은 기존 관할 지역 내 근무를 원칙으로 신분과 처우를 보장한다. 대규모 강제 전보는 없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올해 공무원 합격자는 광주시·전남도 해당 채용 공고문에 적힌 규정에 따라 종전 근무지 원칙이 인정된다."

-교육행정은 어떻게 바뀌나.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단일 교육감 체제로 재편된다. 교육 자주성과 특수성을 살리는 특례 규정이 포함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 학교·영재학교·특수목적고 등을 교육

감이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교사·교육공무원 근무지는 달라지나. "기존 임용자는 종전 근무 권역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직 통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은 있다."

-지역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특례는.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미래도시 육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규제 완화 및 예타 면제 특례 등이 포함된다. 통합을 성장 전략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김준희·황희규 기자

## 공소취소 특위 만든 정청래... 공취모 "해산 없다" 마이웨이

정, 공식 기구로 공취모 흡수 시도  
공취모 "모임 계속" ... 일부는 탈퇴  
검찰을 압박해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움직임이 자중지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많은 의원님이 공소취소 모임 이름으로 당의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공취 특위)를 만들어 의결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10명 안팎의 의원이 참여한다.

지난 23일 박성준·이건태 의원 등 반

청파(반정청래파)가 105명의 의원을 끌어모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하 공취모)을 떠나자 당 공식 기구를 만들어 흡수하려는 시도였다.

공취모 출범 전후 친청파(친정청래파)의 불만은 고조돼 왔다. 이명을 원

한 친청파 의원은 "이 대통령을 도우려는 순수한 의도만 있었다면 당이 다 같이 움직여서 추동력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며 "의도를 가진 의원들이 세력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정 대표 지지층이 몰린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은 이날도 "공식 기구가 출범했는 /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상담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김영선**  
연방세무사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 대구·경북, 통합 동상이몽... 대전·충남선 '매향노' 공방



## 통합 보류에 지역사회 혼란

대구시의회 "졸속 통합 강행 반대"  
경북도의회 "500만에 좌절 안겨줘"

대전·충남은 사실상 무산 분위기  
"고향 팔아먹어" "민주당 책임"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는 여야 갈등은 물론 지자체와 정치권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만 통과시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전·충남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는 통합을 반

대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경북도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500만 대구·경북 사·도민의 열망에 좌절을 안겨줬고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으로 사·도민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했다.

임시국회 회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막판 설득을 통해 특별법안 통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 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며 "지역의 생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쟁으로 멈출 시간이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했다.

대전·충남 지역은 사실상 행정통합

이 무산된 분위기다.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통합 무산에 따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듯한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의 미래를 짓밟는 내란 잔당 국민의힘을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알뜰한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지역의 명운이 걸린 특별법을 사장시켰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선 이 시장과 김 지사를 '이완용'에 비유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장종태(대전 서갑) 국회의원은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면 이장우, 김태흠과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는 고향을 팔아먹은 매향노"라고 했다.

반면에 김 지사와 이 시장은 특별법

안 보류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김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재정 및 권한 이양)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법안은 핵심이 모두 빠지고 선연적 문구만 남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에 반대할 적이 없다. 다만 민주당이 발의한 엉터리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며 "통합에 반대하던 (민주당) 사람들이 대통령 기자회견 뒤 통합의 주도자인 것처럼 나선 것은 꼴불견"이라고 공격했다.

신진호 기자

2025년 12월 26일~2026년 2월 6일 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관련 법률안 5건 제안(통합·조정)	2026년 2월 12일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명칭·재정특례·청사 배치 관련 수정안 반영)	2026년 2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026년 3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	---	-------------------------------	-----------------------------

## 집안싸움 커진 국힘... TK의원 오늘 투표, 당 입장 정한다

### "여당 이간질 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 통과 찬성 우세하나 속단 어려워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특별법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을 26일 오전 전체 TK 국회의원의 투표로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TK 통합법 처리를 보류시킨 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커지자 공여지책을 택한 것이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25일 이 같은

결정을 한 건 TK 통합법을 둘러싼 불쌍사나운 집안 싸움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기 때문이다. 전날 법사위에서 법안을 보류하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 때문"이라고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러자 주호영(대구 수성갑·6선) 의원과 권영진(대구 달서병·재선) 의원이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내 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송언석(경북 김천3선) 원내대표가 발끈해 "반대한 적은 없다"며 반박하다 화끈하게 싸워가며 표명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다는 초조함도 더해졌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3일에 끝난다. "이번 회기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지방선거는 통합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TK 지역 의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TK 의원 투표가 결정되자 국민의힘에선 "추미애 위원장의 이간계에 당했다"(신동욱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는 분석도 나왔다. 강승규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힘) 갈

라치기를 위해 TK 통합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 이간질에 더는 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를 해서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표면적으로는 '지방선거 전 통합법 통과' 찬성이 우세하다. 대구 의원 12명은 전날 "통합법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사위 재논의와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중앙일보가 이날 경북 의원 1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찬성 6명, 반대 7명이었다. TK 국민의힘 의원 25명 중

18명이 찬성인 셈이다. 다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투표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찬성파는 "지금 아니면 정권 교체 전 통합은 물 건너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이 불만족스럽더라도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TK도 통합해야 한다는 게 찬성파의 주장이다. 반면에 반대파는 "현재 법안으로는 재정 지원이나 권한 이양이 충분치 않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박준규 기자

### 데 계파논의를 하느냐"며 공취모를 향한 비난으로 들끓었다.

합당 제안 때부터 정 대표와 호흡을 같이해 온 유시민 작가가 지난 19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공취모를 "미친 짓"이라고 비난한 것이 같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공취모는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공취모 박성준 상임대표는 이날 의원 텔레그램방에 "공소취소가 될 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까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당의 공식 기구가 발족해도 뒷받침하는 모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도 시작이 안 됐는데 해체되는 것은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축인 한준호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공취모는 공취모대로, 당 기구는 당 기구대로 간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의원은 공취모 탈퇴를 선언했다. 김기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공식 기구로 추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왜 모임을 계속 존치하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탈퇴를 선언했다. 부승찬 의원은 "공취모가 순수한 의도와 달리 '계파 정치' 비난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라며 "당이 관련 기구를 출범했으니 저는 오늘부로 '공취모'를 떠나겠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특위가 설치됐으니 해산이 자연스럽다"며 탈퇴했다.

강보현 기자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안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셉티비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우리말 바꾸기**

**‘가르치다’, ‘가리키다’**

많이 쓰면서도 늘 헷갈리는 말이 ‘가르치다/가리키다’이다. 헷갈리는 우리말 순위에서 빠지지 않는 사안이다. 각각의 의미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막상 사용할 때는 혼동하기 일쑤다.

우선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게 하거나 익히게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는 그녀에게 운전 가르쳤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등처럼 사용된다. ‘가르치다’는 그릇된 버릇 등을 고쳐 바로잡는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아이의 버릇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저런 놈에게는 버릇장머리를 툭툭히 가르쳐 놓아야 한다”처럼 쓰인다.

‘가르치다’는 상대방이 아직 모르는 일을 알도록 알려 준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너에게만 비밀을 가르쳐 줄게”가 이렇게 쓰인 경우다. 사람의 도리나 바른길을 일깨우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셨다” 등과 같은 예다. 이에 비해 ‘가리키다’는 손가락 등으로 어떤 방향·대상을 집어서 보이거나 말하거나 알릴 때 쓰인다. “그는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켰다” “시곤톱이 벌써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가 이런 경우다.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낼 때도 쓰인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일범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자의 눈**

**배달 로봇은 되고, 웨이모는 안 되는 이유**



**우훈식**  
경제부 기자

LA에 폭우가 쏟아지던 날, 끝까지 배달을 하겠다고 물에 잠긴 길을 끄강대며 건너던 작은 배달 로봇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돌았다. 기계인데도 왠지 월급 받는 근로자가 비 맞으며 출근하는 모습 같아 웃기면서도 짠했다. 댓글에서도 “퇴근시켜줘라”, “오늘도 실적 채운다”, “너무한 거 아니냐” 같이 안쓰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장면이 더 재밌는 이유는 그 로봇들이 그냥 바퀴 달린 배달 상자처럼 보이지 않게 했다는 데 있다. 앞쪽에는 눈처럼 보이는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고, 로봇마다 각자의 이름이 있다. 살짝 기울어지면 고개를 갸웃하는 것처럼 보인다. 복잡한 길에서 가다 멈추다를 반복하다 험겁게 통과하면 지켜보던 이들의 박수를 받기도 한다.

그런데 같은 자율주행인 웨이모는 정반대다. 차가 도로에 멈춰 서거나 비보호 좌회전 타이밍을 못 잡으면 다른 운전자들은 그 옆을 썰하게 지나가고, 온라인 커뮤니티엔 “멍청한 웨이모 때문에 또 길이 막혔다”는 불만이 올라온다. 시위 현장에서는 분노의 분출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무도 “웨이모가 오늘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둘 다 테크 기업이 만든 자동화 시스템이고, 둘 다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건 똑같은데 감정의 결은 완전히 다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배달 로봇은 보도에서 만난다. 잠깐 길을 막아도 그냥 옆으로

비켜 가면 끝이다. 주말 산책 중 흥미를 유발하기도 한다. 바쁜 하루 속에서 소소한 구경거리가 되기도 한다. 반면 웨이모는 운전 중 도로 위에서 만난다. 도로는 이미 모든 사람이 예민해져 있는 공간이다. 신중하나, 차선 하나에도 흐름이 끊기면 바로 체감된다. 출근길 1분은 체감상 10분이다. 그 상황에서 귀여움을 느낄 여유는 없다.

속도도 다르다. 배달 로봇은 느리다. 느리기 때문에 표정이 보인다. 눈처럼 보이는 화면이 멈추면 “어?”하는 느낌이 들고, 방향을 틀면 “길 찾는 중인가 보다”라는 해석이 붙는다. 반대로 자동차는 원래 매끄럽게 흘러야 하는 존재다. 조금만 어색해도 작동 오류가 된다.

사람은 얼굴처럼 보이는 것에 자동으로 감정을 이입하고, 이름이 붙는 순간 그것을 하나의 자의식 개체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평가 기준도 달라진다. 성능이 조금 부족해도 “아직 배우는 중”이 되고, 길을 헤매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가 된다. 같은 오류라도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캐

릭터의 실수로 번역된다.

기업 입장에서 이게 꽤 큰 이점이다. 낮은 기술이 도시 안으로 들어올 때 가장 큰 장벽은 기능보다 거부감인데, 캐릭터화는 그 심리적 마찰을 낮춘다. 사람들은 차가운 기계보다 성격이 있는 존재에 훨씬 관대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책임의 무게를 낮추는 효과다. 완벽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보일 때는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지만, 캐릭터로 보이면 기대치 자체가 인간적인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업은 기술을 도시에 안착시키는 시간을 벌 수 있고, 이용자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정서적으로 적응한다. 귀여움은 기능은 아니지만 일종의 완충 장치인 셈이다.

여기에 요즘 사회 분위기도 겹쳐 있다. 사람들은 점점 거대한 시스템에는 피로감을 느끼고, 작은 캐릭터에는 마음을 준다. 얼굴 없는 자동응답, 이유를 알 수 없는 알고리즘, 설명 없는 정책 변경 같은 것들에 이미 지쳐 있다. 그래서 도로 위의 자율주행 차를 보면 또 하나의 거대한 자동화 시스템처럼 보인다. 반면 눈 달린 작은 배달 로봇은 현장에서 뛰는 직원처럼 보인다. 분노의 화살 대신 연민이 느껴진다. 캐릭터는 응원의 대상이 되고, 시스템은 평가의 대상이 된다. 사람들은 기술과 불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마주할 때 느껴지는 감정에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아침에**

**겨울이 봄을 이기지 못한다**



**이기희**  
Q7 파인아트 대표·작가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봄을 바라고 썼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새로 돋은 정맥(靜脈)이/바르르 뚫다(중략)/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중략) /3월(三月)에 눈이 오면/샤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 열매들은/다시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밤에 아낙들은/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아궁이에 지핀다’ -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중에서

시인은 관념을 벗어나 순수한 이미지만으로 감각적인 언어를 시상에 담아 영혼에 불을 지핀다. ‘샤갈의 마을’은 실재하지 않는 환상의 세계이며,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력을 환상적인 분위기에 담아 따뜻한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기다림의 끈을 놓지 않으면 희망은 작은 풀잎에도 여린 꽃봉오리를 맺는다. 산다는 것은 한평생 기다림의 끈을 놓지 않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인지 모른다.

윤홍길의 중편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해가는 한 남자의 비극적인 모습을 그려낸다. 셋방살이하다 집을 장만한 오씨 집에 세든 권씨는 자신이 대학까지 나온 안동권씨라며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 권

씨는 아내의 수술비를 오씨에게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오씨가 수술비를 대준 걸 모르고) 서툰 강도질을 하다가 탄로가 나고, 행방불명이 된다. 다음날 오씨는 권씨의 방에서 그가 애지중지하던 아홉 켈레의 구두를 발견한다.

‘고도를 기다리며(Waiting for Godot)’는 1969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무엘 베케트의 부조리(不條理)극이다. 줄거리는 ‘기다림’이다. 주인공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국도의 작은 나무 앞에서 ‘고도’라는 이름의 사람을 기다린다.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고도에게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고도를 기다린다. 심지어 고도가 실존하는지도 확신하지 못한다.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주인공끼리 나누

는 대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밥 먹었고 물어보면 난 술이 싹다고 동문서답한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기다리지만 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지 모른다.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만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두서없고 무의미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두 사람은 이야기하지만 서로 벽에 외치는 것과 같이 피상적이다. 고도를 기다리는 일이 힘겨운 에스트라공은 ‘우리 당장 목이나 매자’며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실행하지 못한다. 마치 힘겨운 삶에서 도피하려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과 같다. 얼마나 많은 날을 상처에 베이고 굶주리며 세월에 떠밀려 살아왔는가?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며, 무너지는 자존심에 절망해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인생’이란 글자에 목숨을 걸며 살아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아.’ 베케트의 명대사다. 무의미한 생을 의미 있는 축제로 끝맺기 위해 오늘도 고도를 기다린다. 겨울이 모질어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 고도가 영영 오지 않는다 해도 기다림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은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산다.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 임상경력 50년
- \* 각종 보험 취급
- \* VA, MD, DC 면허 소지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여권발 합당 다이내믹스의 달라진 점과 달라져야 할 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가 여권의 심각한 내홍만을 드러내며 끝이 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일방적 추진이었다는 절차적 문제와 6·3 지방선거 이전에 성사시키려 했다는 시점의 문제가 모두 논란을 키웠다.

### 기존 공식과 달라진 여권발 합당

과거 한국의 여권발 합당에는 몇 가지 공식이 있었다. 첫째, 여소야대에 처한 대통령이 여대야소로의 전환 등 유리한 의회 지형을 구축하기 위해 시도했다. 노태우 대통령 시기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간 '3당 합당'(1990), 김대중 대통령 시기 새정치국민회의와 국민신당 간 합당(1998)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소수당 지도자는 통합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합당에 적극 응했다. 특히 개인적 경쟁력은 우수하나 당세가 약할 때 결단이 이뤄졌다. '3당 합당' 때는 김영삼 총재가, 1998년 합당 때는 이인제 교민이 통합 여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노리며 합당에 임했다. 지지하듯 전자는 결국 대선 후보가 되었지만, 후자는 실패한 후 탈당했다.

셋째, 각 당 지도자의 당에 대한 장악력이 막강하던 때라 내부 반발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며 합당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밀실 합의도 난무했다. 특히 지역주의가 굳어진 이후론 각 당별로 국회의원 등 주요 구성원의 기반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덕분에 지도부 구성, 공천 배분 등 합당에 따른 지분 조율이 비교적 수월했다.

그러나 이번 여권발 합당 다이내믹스는 과거와 몇 가지 점에서 달랐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다. 여당 의석이 이미 절반을 훌쩍 넘기고 있는 데다 합당을 한다고 개헌 정족수를 채우는 것도 아니므로 절실할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고 이혜찬 전 국무총리 빈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없다. 오히려 합당으로 인해 여당을 향한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되거나 중도 표심이 이탈할 것에 대한 우려가 더 컸을 것이다. 향후 이 대통령은 여권의 외연 확대에 관한 정치적 이득이 극대화되는 시점에, 본인한테 좀 더 협조적인 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합당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혁신당 쪽을 보면, 조국 대표가 당장 차기 대선을 바라보며 합당을 추진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당세에 비해 그의 개인적 인지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대선보다는 당장의 정치적 생존이 더 시급해 보이기 때문이다. 비록 무위에 그쳤지만, 지방선거를 기회로 삼아 통합여당 안에서 자신의 세력과 지분을 키우는 게 당면 목표였을 것이다.

과거와 달라진 가장 중요한 점은 합당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이다. 비록 대통령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변수가 있었지만, 정치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거대 규모의 당원 등 이해관계자가 대폭 늘어난 영향이 크다. 몇몇 지도자들만의 밀실 합

대통령이 선호하지 않았던 합당 몇몇 지도자의 밀실 합의 불가능 호남 기반이라 선거연대 어려워 속의 통제 정책 경쟁의 장 열길

의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물론 지방선거를 앞둔 합당의 시점도 불리했다. 자신의 지역구를 혁신당 측에 내줘야 할지도 모를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과 이들의 불안을 외면할 수 없는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들이 쉽게 찬성할 리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두당은 모두 호남을 핵심 지역 기반으로 삼고 있어 공천을 둘러싼 조율이 과거 합당 사례들에 비해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논의 중인 선거연대 또한 쉽게 체결되진 못할 것이다.

### 합당의 부정적 예측들

한편, 이번 여권발 합당 논의 역시 단지 여권의 내부 권력투쟁 차원에서만 해석되고 소비될 뿐 중요한 성찰은 부재

한 듯해 우려된다. 지방선거 이후 어느 시점에는 다시 논의될텐데, 정치공학적인 사고에만 매몰된 합당의 담론들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관련해 제대로 된 고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양당 간 합당은 다당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어렵게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점이 지적돼야 한다.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창당으로 이미 그 빛이 바랬지만, 그나마 혁신당의 선전은 이 선거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단 하나의 사례였다. 특정 정책아젠다 및 고정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입 기회를 차츰 넓힐 수 있는 제도적 틀로서의 가능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예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당의 합당은 기득권 양당제의 타파와 다당제로의 전환을 통한 정치적 대표성(비례성)의 증진이란 선거제 개혁의 근본적인 목표를 또 한 번 좌절시킬 수 있다.

또한 합당은, 대선 후보급 인사들의 정치공학적인 계산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 향후 더 격렬한 당내 갈등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달라진 합당의 문법

속에서도 이 위험성은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총선 때 공천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종국에는 대선 때 후보직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특정 계파의 이탈 등 다시금 분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삼에 패한 민정당계가 그랬고, 노무현에 패한 이인제가 그랬다.

### 긍정적 합당 위해 달라져야 할 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합당은 당내 민주주의란 측면에서 긍정적 가능성도 내포한다. 당내 목소리가 다원화될수록 특정 계파의 패권이 희석되고, 지지자들의 다채로운 정책적 요구들에 더 잘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합당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진보적·개혁적 노선을 공유하는 가운데 세부적인 정책 등을 놓고 생산적인 경쟁을 불러일으킬 장을 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속의의 문화가 필수적이다. 이야말로 향후 합당 다이내믹스에서 반드시 달라져야 할 점이다. 마침 정 대표 주도 하에 당원의 권한까지 대폭 확대된 만큼, 민주당으로선 속의의 배양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권한이 큰 대규모의 당원들이 속의하지 않은 채 수동적인 존재에 머무르면, 투쟁 지향적인 당내 강경파한테 힘이 쏠리는 추세만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양당 간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후 합당이 다시 논의된다면, 위로는 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에서부터 아래로는 당원들에게 이르기까지 속의를 학습해나갈 수 있는 기회로 선포되어야 한다. 속의만이 합당 이후 벌어질 모를 참혹한 당내 권력 투쟁을 생산적인 정책 경쟁으로 바꿀 수 있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변덕 부렸다. 그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제한법(IEEPA)을 근거로 매긴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20일 무역법(1974년)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하루 뒤인 21일 관세율을 15%로 인상했다. 그는 스스로 협상의 귀재라고 여긴다. 가장 믿음직한 지렛대를 빼앗기자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애초 IEEPA는 미국의 관세 관련 법 다섯 개 가운데 미 대통령의 재량권을 가장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교역 상대국에 관세

## 막강한 협상 지렛대를 빼앗긴 트럼프의 '분노 발작'

를 부과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트럼프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라며 브라질에 관세 50%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IEEPA가 부여한 재량권이 큰 만큼 상대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만점이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은 서둘러 워싱턴으로 달려가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해야 트럼프의 아량(상호관세율 인하)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제 미 의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는 한 트럼프가 꺼내 들 수 있는 법은 네 개뿐이다. 이미 써먹고 있는 1974년 무역법(122조)을 비롯해 ▶1980년 스무트-홀리법(338조) ▶1962년 무역확대법(232조) ▶1974년 무역법(301조) 등이다. 이들 법엔 제약 조건이 분명하다. 무역법 122조의 최고 세율은 15%다. 의회의 연장 의결이 없는 한 150일 뒤에는 관세를 물릴 수 없다. 나머지 법은 몇 달씩 걸리는 사전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약 조건이 분명하다는 것은 누군가 소송하면 트럼프는 패배하기에 십상이란 얘기다. 결국 트럼프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전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기술을 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 직후 "수년간 우리를 갈취해 온 나라들이 환호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목소

리를 높였다. 트럼프의 말대로 품목 관세 등으로 상대국을 압박하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 외교협회(CFR)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은 어떤 법 조항도 IEEPA 만큼 폭넓은 재량권과 강력한 협상력을 트럼프에게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CUNY) 교수가 대법원 판결 직후 SNS를 통해 예측한 대로 "분노 발작(temper tantrum)"일 수 있다. 내면의 무력감이 분노로 표출된다는 얘기다.

오현석 정치부 기자

#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중/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근골격계 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박스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근육 통증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통증치료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원장 김우기 DPT, LAC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 Licensed Acupuncturist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렌리 지역]

**시 설**

**전국 법원장 의견 다 무시하고 '사법 3법' 강행할 참인가**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 오후 다섯 시간가량 이어진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참석자 43명은 "사법부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 부의는 심각한 유감"이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통상 정치권력과 충돌을 극도로 자제해온 사법부가 이 같은 의견 표명에 나선 것 자체가 법외조직 도입법과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한다면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라고 할 수밖에 없다.

법원장들이 모여 민주당 법안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법원장들은 회의 직후 공개한 결의문에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재판 확정 사실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원·헌법재판소·국회·정부 등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사법 후진국으로 갈 수도 있는 길목"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다른 참석자는 "민주주의의 위기고 법치주의가 후진하는 것으로 후대에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원장들은 일단 네 명을 늘린 뒤 추가로 논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반면에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현재보다 12명 늘어난 26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정권에 우호적인 대법관 숫자를 대폭 늘려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사법 3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부정선거론 막겠다며 무소불위 선관위 만드는 부실 입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과잉 입법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투표자 유방해죄' 조항 등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무소불위 권력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야당에선 나치의 비밀경찰 '게슈타포'로 만든다는 말까지 나왔다. 거대 여당이 속의 절차를 무시한 채 독주하다 부실 입법의 함정에 빠진 상황이다.

문제의 조항은 선관위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국민투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엄 사태를 촉발한 부정선거론 등 선관위 관련 가짜뉴스의 폐해를 차단하려는 게 입법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의지만 앞세우다 '디테일의 악마'가 곳곳에 방치됐다. "행정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전문가 검토는 무시됐고, 제1야당이 상임위 표결을 거부해도 법안은 통과됐다. 통신 관련 선거 범죄에는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공직선거법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선관위 힘을 더 키워냈다. 선관위의 투표 관리가 엉망이라는 메시지만 보내도 무슨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법안이 만들어진 셈이다.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징역형(7년 이하)보다 중하다.

선관위의 신뢰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을 쓰고,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비리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는 게 먼저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은 헌법 개정에 대비해 재외국민 투표 절차가 없는 헌법불합치 상태의 법을 보완하려는 게 본래 목적이었다. 중차대한 과제에 여당이 핏수를 부리는 바람에 오히려 선관위의 신뢰를 끌어내리는 형국이다. 괜한 불신을 만드는 조항은 본회의 상정 전에 삭제하는 게 좋다.

**낙하산·찍어내기... 정권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수난**

25일 중도 사임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정부의 전방위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으며 "조직에 광풍이 몰아닥치는 어이없는 상황에서 그만두는 게 사장의 역할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의 정기 인사를 놓곤 대통령실과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사장이 오면 하라' '3급 이하만 하라'는 등 20여 차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수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정 감사가 동시에 4건이 진행되고 있다며 '표적 감사'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사장에 임명됐다. 정부와 이 사장의 갈등은 이미 지난해 12월 대통

령 업무보고에서 표면화했다. 이른바 '책갈피 외화 불법 반출'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질타당한 이 사장은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다.

대다수의 공기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흔들린다. 국가 기간시설이자 글로벌 허브 공항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천공항도 주기적으로 경영 불확실성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공기업 수장의 임기가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정치 현실상 이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방안을 공론화해 논의하는 게 정도다. 또 인천공항에서 불거진 찍어내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후임 사장에는 또 다른 낙하산 인사가 아닌 전문성 있는 경영인을 선임하길 바란다.

**사법부 위기, 개헌으로 풀자**

정호식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법원·헌법재판소 간 갈등이 심상찮다. 그간 '재판소원은 4심제라 안 된다'던 전·현직 헌법재판소장들이 집권여당 편에 가세했다. 선출권력(대통령·국회)과 비선출 권력(사법부) 간 갈등이 사법부를 대표하는 두 헌법기관의 전쟁으로 비화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법관 출신인 김상환 헌재소장은 법관일 땐 일관되게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가 무너진다고 반대했었다. 그러다 헌재소장 지명 후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때 "개헌을 통해 도입하는 게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고 하더니 취임 후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으로 입법자(국회)가 해결할 과제"라고 적극 찬성으로 선선했다.

압권은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실무위원으로 재판소원에 반대했던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8년 전 제 의견이 잘못됐다고 반성한다"며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란 건 법원 내에서이지 다른 국가기관에 주장할 순 없다"고 입장을 바꾼 일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소장을 포함한 6명을 대통령·국회가 임명하는 정치적 한계가 있는데도 법률가로서 평생 소신을 뒤집는 걸 정무감각이 뛰어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을 위시해 대법관 증원, 법 외조직(부당판결 판사 처벌법) 도입 등 사법 3법 도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건 한국판 '법원 재판 계획(court-packing plan)'이다.

이 같은 사법부 재판이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이틀날부터 추진된 걸 국민이 다 안다. 두 전·현직 헌재 소장이 임기 1년3개월 남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전방위 공격에 가담해 사법부 독립에 역주행한 모습은 불쌍스럽다.

헌법이 국회·정부·법원의 삼권이 견제·균형을 이루도록 한 건 1948년 유진오 박사의 제헌헌법 초안부터 대한민국 국체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었다. 독재

자 출현, 군부 쿠데타를 우려한 때문이었다. 정부 형태는 이승만 당시 제헌국회의 의결로 막판에 내각제가 대통령제로 바뀌었지만 '사법권은 법원이 행한다' '최고 법원은 대법원' 등 사법부 부분은 초안 그대로 제정·시행됐다. 당시 '대법관 5인, 국회의원 5인'으로 위헌법을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를 두도록 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채 폐지됐다. 1987년 헌법을 통해 상설 헌법재판소로 출범했다. 제헌헌법 때부터 재판에서 적용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하도록 했을 뿐 이외엔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도록 했다.

87년 민주화 이후 또다시 삼권분립 설계를 무너뜨리려 한 데 분명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원죄가 있다. '장기 독재'를 계획했든, 안 했든 간에 그는 국회에 무장군인을 투입해 입법권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 문란의 폭동'을 일으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도구로 또 다른 선출 권력

**헌재 수장들 '재판소원' 소신 뒤집기 민주당 법원 재판 계획에 동참한 꼴 '사법 독립' 재설계하려면 개헌 필요**

인 국회를 위시해 삼부를 발아래에 두려 했다. 국회 다수 여당이 강행 수순을 밟고 있는 사법 3법 역시 '3심제 재판' '재판의 독립' 등 건국 때부터 설계한 사법권의 본질적 영역을 변경하는 것이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숙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 역시 현직 대통령의 내란 폭동과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 예상한 일이 아니다.

물론 헌법의 삼권분립이란 그랜드 디자인 역시 재설계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제도는 시대 변화와 사회 요구를 수용해 진화하지 못하면 무너지기 십상이다.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선출 권력의 폭주를 견제하는 민주주의 마지막 방벽인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대수술해야 마땅하다. 단,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게 개헌 절차다. 여의도 정치권 이늘 하듯 '현재는 우리 편, 법원은 너희 편'식 갈라치기 우격다짐은 안 된다.

**중앙일보**

구독신청: 02-55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a href="http://jfe.joongang.co.kr">http://jfe.joongang.co.kr</a>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a href="http://ad.joongang.co.kr">http://ad.joongang.co.kr</a>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물품: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a href="mailto:sarangbang@joongang.co.kr">sarangbang@joongang.co.kr</a>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근 편집국장: 김종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본사 인쇄: (주)중앙일보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구(永久) FINANCIAL TIMES, 일본(日本) NHK, 日(日) 本(本) 報(報) 社(社) 獨(獨) 資(資) 企(企) 業(業) 有(有) 限(限) 公(公) 司(司) 獨(獨) 資(資) 企(企) 業(業) 有(有) 限(限) 公(公) 司(司)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하십시오!"



지금 연락주세요 - 무료 로컬 마케팅 진단 (신문 독자 한정)

**571-506-0220**  
sales.intelisystems.com/k1



구글 지도 랭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소셜미디어, 유튜브 광고,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웹사이트 제작 [www.intelisystems.com](http://www.intelisystems.com)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와 함께 하는

# 건강한 인생 & 의료비 나눔

## 크리스천들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의료보험이 아닌 크리스천들을 위한 의료비 나눔 사업



- CA, DC, MA, NJ, RI 주: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 면제 혜택
- IN, MO 주: 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30여 년의 신뢰와 경험, CMM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 CMM 회원 혜택



#### 경제적인 월회비

- 월 \$45로도 질병당 입원 및 수술비 최대 \$150,000
- 25세까지 부양 자녀 1유닛 회비 적용



#### 글로벌 의료 서비스

- 미국, 한국 포함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
- 원하는 의사와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



#### 의료비 나눔

- 질병당 최대 \$150,000
-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000,000 추가
- 가입 전 질환에 대한 의료비 나눔 범위 확대



#### 100% 한국어 서비스

- 한국어와 영어 서비스 제공
- 간단하고 신속한 가입 절차
- 연중 언제든지 회원 가입 가능

지금 바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나에게 맞는 레벨을 확인하세요!



773-777-8889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www.cmmlogos.org  
info@cmmlogos.org

가입문의: 773-777-8889 (Ext.5002) 동부지부 김준범 지부장: 917-535-1144, 917-500-1330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LOTTE** PLAZA **market**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3월 3일**  
**3겹살데이**  
**FEB. 26TH - MAR. 5TH, 2026**



**냉동 삼겹살**  
**소금구이 (패밀리팩)**  
 Frozen Pork Single Belly Steak  
 Family Pack

**\$333**  
 LB

LIMIT 3 PACK FROZEN

**양념 삼겹살**  
**주물럭**  
 Marinated Single Belly Chop  
 (Jumulleok)

**\$399**  
 LB

LIMIT 3 PACK

**내추럴**  
**우삼겹살 구이**  
 Frozen Natural Beef Sliced Short Plate

**\$12.99(PACK)-1.3 LB**

**\$999**  
 LB

LIMIT 3 PACK FROZEN

편입 중 오missions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항목의 사정에 따라 조기종료 또는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 |   |  |  |   |   |  |  |   |   |  |  |  |   |  |
|---|--|--|---|---|--|--|---|---|--|--|--|---|--|
| <b>FLORIDA</b><br>ORLANDO, FL<br>Tel. 407-486-1115<br>3191 West Colonial Dr.<br>Orlando, FL 32808 | <b>TAMPA, FL</b><br>Tel. 813-352-1107<br>11800 Bruce B. Downs Blvd.<br>Tampa, FL 33647 | <b>JACKSONVILLE, FL</b><br>Tel. 904-617-0500<br>8026 Shalaby Blvd.<br>Jacksonville, FL 32226 | <b>NEW JERSEY</b><br>EDISON, NJ<br>Tel. 732-752-2350<br>1190 Anthony Ave.<br>Edison, NJ 08802 | <b>RICHMOND, VA</b><br>Tel. 804-716-6461<br>7801 W. Broad St.<br>Richmond, VA 23294 | <b>STERLING, VA</b><br>Tel. 571-313-1794<br>30 Prosper Ave Dr.<br>Sterling, VA 20155 | <b>CENTREVILLE, VA</b><br>Tel. 703-543-7942<br>1900 Cornerstone Court Ln.<br>Centreville, VA 20121 | <b>CHANTILLY, VA</b><br>Tel. 703-486-6600<br>13900 Wakehurst Dr.<br>Chantilly, VA 20151 | <b>ANNANDALE, VA</b><br>Tel. 571-419-6954<br>5214 Park Royal Rd.<br>Springfield, VA 22151 | <b>ASHBURN, VA</b><br>Tel. 703-858-2780<br>#2801 Farmstead Farm Plaza<br>Ashburn, VA 20147 | <b>MARYLAND</b><br>ELLCOTT CITY, MD<br>Tel. 410-750-9656<br>4801 Bullwinkle National Pike<br>Ellicott City, MD 21042 | <b>CATONSVILLE, MD</b><br>Tel. 410-455-0505<br>6600 Bullwinkle National Pike<br>Catonville, MD 21228 | <b>Rockville, MD</b><br>Tel. 301-417-8678<br>1102 Veves Mill Rd.<br>Rockville, MD 20851 | <b>GAITHERSBURG, MD</b><br>Tel. 301-527-6866<br>221 Muddy Branch Rd.<br>Gaithersburg, MD 20878 |
|---|--|--|---|---|--|--|---|---|--|--|--|---|--|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파이낸스 & 연예/문화**  
부동산·금융·회계  
**&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February 26, 2026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칭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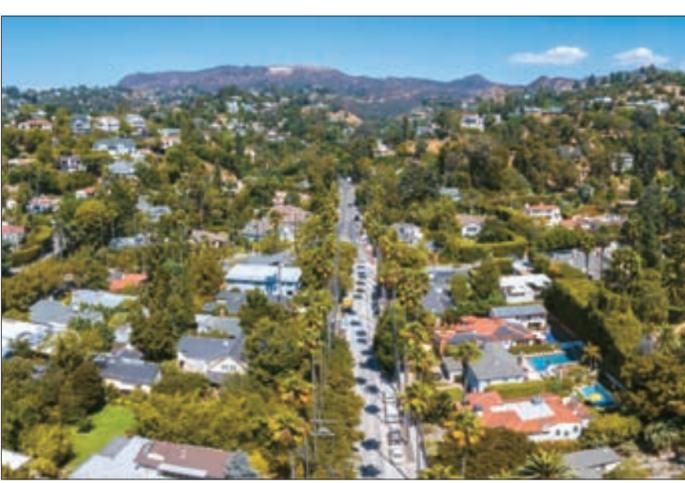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95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담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 주택 얼마나 부족, 계산마다 달라

주택 부족은 얼마나 심각할까. 신용평가사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20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골드만삭스는 300만 채로 추산하고 질로는 400만 채 이상이라고 분석한다. 브루킹스연구소는 500만 채, 매켄지는 800만 채가 필요하다고 전망한다. 공화당은 부족분이 2000만 채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 경제학자들 도 있다.

수치가 이렇게 다르고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이유는 주택 수요의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은 얼마가 적정 가격인지, 몇 명이 거주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면적이 바람직한지를 산정하는 가정이 모두 다르다.



주택이 얼마나 부족한지 추정된 수치가 기관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LA의 주택가.

주거비 부담이 핵심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주택 수요를 추정하는 것은 경제적 논란을 넘어 정책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전국에는 약 1억 4600만 채의 주택이 있다. 이 가운데 810만 가구는 혈연 관계가 아닌 이들과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이른바 ‘동거 가구’로 분류된다. 질로는 이들 대부분이 독립 주거를 선호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서 주택 부족분을 추산한다. 질로는 임대나 매매가 가능한 공실 주택이 340만 채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동거 가구 수에서 뺀 470만 채를 추가로 필요한 주택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주택을 분석할 때 대체로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하다. 적정한 공실률은 얼마인가, 높은 주거비 때문에 독립을 미룬 가구는 얼마나 되는가이다. 건전한 주

## 추산치 200만~2000만 채로 크게 엇갈려 적정 공실률도 3~13%로 기준 크게 달라

택 시장에는 일정 수준의 공실이 필요하다. 공실은 세입자나 매수자가 바뀌는 과정이거나 리모델링 상태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소유주가 두 곳 이상의 거주지를 오가는 경우일 수도 있다. 전국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약 600만 채, 즉 20채 중 1채는 세컨드 하우스다.

적정 공실률은 전문가마다 다르며 3%에서 13%를 오간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 건설이 급감하면서 공실률은 2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가 점유 주택은 1% 미만, 임대 주택은 5% 수준까지 낮아졌고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이론적으로는 가구 수에 일정 수준의 공실을 더한 숫자가 적정 주택 수일 수 있다. 그러나 가구 수 자체가 정확하

집계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주거비가 과도할수록 성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5~34세 성인의 18%가 부모 집에 거주했는데 이는 1970년대의 8%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기존 가구 수에 적정 공실과 함께 충분한 공급이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형성됐을 잠재 가구를 더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동일한 틀을 적용한 연구도 결론이 다르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와 폴리시맵은 1985~2000년의 주택시장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80만 채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사정이 있어 독립하지 못한 잠재 가구 120만 가구를 더해 총 200만 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2006년의 공실률 12% 이상을 기준점으로 삼았다. 주택 가격 외에 취업난이나 결혼 지연 같은 요인을 분리하는 통계 모델을 적용해 490만 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2022년 의회 보고서는 전혀 다르게 접근했다. 과거 시장을 복원하려는 대신, 개발업자가 인허가나 zoning 규제 없이 수요에 맞춰 지을 수 있었다면 몇 채를 지었는지 기준을 삼았다. 의회 합동경제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토지 가격이 주택 가격의 약 20%이어야 정상 시장이며 이를 초과하면 공급이 인위적으로 제약된 것이라고 봤다. 이 기준을 모든 카운티에 적용한 결과 부족분은 2000만 채에 달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노스다코타와 웨스트버지니아는 주택 부족이 거의 없지만, 가주는 450만 채가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공화당은 의미 있는 공급 확대만으로도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본다. 추가로 270만 채를 지으면 약 500만 명에게 주택 소유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케빈 코린스 이코노미스트는 “집값을 실제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려면 기존 추산보다 훨씬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주택 분석가 케빈 에르드먼은 또 다른 계산을 제시한다. 물가를 반영한 1인당 주택 건설 지출이 1990년 이후 개인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만약 1990년대 수준을 유지했다면 주택 4000만 채가 늘어났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유희 객원기자

» 2면 '주택부족'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세계와 만나는 창  
**The Korea Daily**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속성반**  
**부동산 학교**  
수업료: \$350 (교재비: \$100) 새롭게 준비합니다.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2025년 9월 16일 (화)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의 <<<  
• 한국식 쪽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기본 컴퓨터 교육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타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 수리 전 가격: \$650,000  
• 공사비(후불): \$45,000  
• 수리 후 가격: \$750,000  
\* 집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버지니아**

1 **\$85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골집, 아주 넓고 이쁘게 잘 꾸민 집

2 **\$999,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꾸민 집, 벽돌, 마루바닥

3 **\$1,05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드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많이 함

4 **\$1,875,000** 비엔나 싱글홈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메릴랜드**

1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2 **\$1,075,000** 포토크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크에 위치한 잘 꾸민 집, 좋은 가격

**DC**

1 **\$950,000** 워싱턴 디시 듀플렉스  
방 4, 화장실 4+1, 차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이쁜 집

2 **\$649,000** SE 타운  
방 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 체납 부동산 대거 공개 경매

샌디에이고카운티 686필지  
5년 이상 세금 미납 주택들  
최저 2000달러짜리 매물도  
내달 13~18일 온라인 진행



지난해 LA한인타운의 부동산 거래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타운에서 바라본 한인타운 전경. 박낙희 기자

남가주 인기 주거지로 꼽히는 샌디에이고카운티에서 5년 이상 재산세를 체납한 부동산 수백 건이 다음 달 공개 경매에 부쳐진다.

샌디에이고카운티 세무국은 관내 총 686필지가 오는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연례 세금 체납 부동산 경매에 나온다고 최근 밝혔다.

세금 체납이 장기간 지속하자 징수 주체인 카운티 정부가 부동산에 차압 조치를 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경매 처분하는 것이다.

이번 경매 대상에는 인기 주거지 주택과 건물이 포함된 70필지, 공터 66필지, 타임셰어 지분 550건이 포함됐다.

입찰 희망자는 3월 3일까지 온라인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데, 환불 가능한 보증금 1000달러와 환불되지 않는 3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부 부동산은 더 높은 보증금이 요구될 수 있다.

카운티 측은 “이번 경매를 통해 해결된 매대는 최종 확정되며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입찰 전 관련 규정과 부동산 세부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경매 대상 전체 목록은 카운티 세무국 공식 웹사이트(sdtt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매 주택과 부동산은 최저 2000달러부터 수백만 달러까지 다양하다.

경매 대상 부동산 소유주는 3월 12일 오후 5시까지 체납 세금과 수수료를 전액 납부하면 경매를 막을 수 있다. 카운티는 경매 전 모든 체납 소유주에게 채자 사전 통보를 시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매 물건 중에는 샌디에이고 북쪽 도시인 칼스베드의 주택과 보레고 스프링스 지역 부동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샌디에이고뿐만 아니라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 역시 올해 약 1000건에 달하는 세금 체납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일부 주택은 시작가가 100달러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세금 체납 부동산 경매는 낮은 가격에 매입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권리관계와 추가 비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모기지 금리 6% 아래로 하락

2022년 9월 이후 처음  
관세 불확실성 재고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탓에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모기지 평균금리가 6% 밑으로 떨어졌다.

CNBC가 23일 인용한 모기지뉴스 데일리의 일간 집계에 따르면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금리는 이날 5.99%로 하락했다. 30년 만기 금리가 6%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2년 9월 이후 처음이라고 이 방송은 전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서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게 위험 회피 심리를 키우며 채권 금리를 낮추는 요인이 됐다.

지난 20일 발표된 작년 4분기 성장률이 1.4%(전기 대비 연율)로 나타나

예상을 크게 밑돈 것도 채권 금리 하락에 기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방침을 시사하는 등 주택 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택업계는 대출 금리 하락이 주택 거래 반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금리는 작년 7월까지만 해도 6%대 중후반에 머무르며 주택 구매자들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주택시장은 기존에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산 주택 보유자들이 새집으로 갈아타길 꺼리고, 잠재 주택 구매자들도 단기간 가파르게 오른 집값 탓에 주택 구매를 망설이면서 거래가 냉각된 상태가 이어져 왔다.

# 집값 상승률 둔화... 14년 만에 최저

작년 연간 주택가격 1.3% ↑  
고금리·인플레이션 구매 관망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1%대 초반으로 둔화하며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작년 12월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전국 기준)가 전년 동기 대비 1.3%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 연도별 주택 가격 상승률 기준으로 이는 지난 2011년(-3.9%)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고 S&P는 전했다.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7%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집값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6.6%)과 비교해서도 5.3%포인트나 낮은 상승률이라고 S&P는 설명했다.

팬데믹 이후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모기지 금리 수준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주택 매수자들이

이 관망 자세를 유지한 게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도 상승률이 차별화됐다. 시카고(5.3%), 뉴욕(5.1%), 클리블랜드(4.0%) 등은 작년 한 해 주택 가격이 강세를 나타냈지만, 탬파(-2.9%), 덴버(-2.1%), 피닉스(-1.5%), 댈러스(-1.5%), 마이애미(-1.5%) 등지는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일명 선벨트로 불리는 남부 주요 도시들은 팬데믹 이후 인구 유입이 늘면서 집값이 다른 지역 대비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다.

S&P 글로벌의 니콜라스 고텍 채권 거래상품 및 원자재 부문 수석은 “모기지 금리와 인플레이션이라는 2개의 구조적 요인이 최근 몇 년간 시장 판도를 바꿨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2025년 말 6.2%를 나타내 지난 10년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2025년 물가 상승률은 2.7%로 둔화했음에도 주택 가격 상승률을 앞지르며 주택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렸다”라고 말했다.

# 한달전 완판, 지금은 탄판...분당·수지도 '미달'

“다주택자 압박에 집값 기대 꺾여”  
수도권 분양시장 열기 수그러들여

분양시장 열기가 수그러들고 있다. 최근 분양에 나섰던 경기 분당과 용인 수지 주요 단지가 나란히 청약이 미달됐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과 세제 개편 가능성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면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를 리모델링하는 ‘더샵분당센트로’(포

스코이앤씨)는 지난 24일 일반분양 84가구 중 50가구의 무순위 청약에 받았다. 지난달만 해도 51대 1로 완판됐던 단지다. 하지만 당첨된 50가구가 막상 계약을 포기해 무순위 청약에 들어갔다.

GS건설이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짓는 ‘수지자이 에디션’도 23일 2차 무순위 청약에 진행했다.

지난해 말 1:2순위 청약 때 평균 경쟁률 4대 1을 기록했지만 일부 타입이 미달됐다. 이달 초 1차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두 차례 무순위 청약

이 진행될 때까지 전체 일반분양 480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214가구가 미달이었다.

두 단지 모두 경기 주요 입지여서 올해 초반에도 무난히 ‘완판’(완전 판매)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분양 시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 유예 종료 발표되고 정부 압박이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성남·용인에도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면서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 ▶ 1면 '주택부족'에서 이어집니다

그는 대부분의 공식 추산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고 실제 부족분을 1500만~2000만 채로 본다.

반면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도시계획학자인 커크 맥클루어와 알렉스 슈워츠는 900개 대도시권을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인구

증가가 주택 공급을 초과한 지역은 19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이전 과잉 건설로 주택에 여유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저소득층 가격대의 주택 부족은 인정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맥클루어는 최저임금 인상이 더 효과적인 해법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케이토연구소도 주택 생산이 인구 증가를 따라왔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집값이 비싸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큰 집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집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연구소의 노버트 미셸 이코노미스트는 “부족하다는 말은 살 곳이 없

는 상태를 뜻한다”며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부족한 주택 수를 둘러싼 의견차에는 수학적 모델 차이도 있지만 주택 부족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주택 분석가 에드먼은 “28세 청년들이 집이 있었다면 부모와 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게 부족이 아니

라면 언제 이 단어를 쓰겠느냐”고 반문한다.

**광고·구독 문의**  
Tel. 703-281-9660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버크 타운홈**

**\$565,000**

방3/화3.5/파킹2  
부엌, Bath 등 전체 수리한 집  
Walk-out, 펜스, 덱 & 페티오

**비엔나 콘도**

**\$325,000**

방1/화1+Den, 굿로케이션  
전체마루, 넓은 덱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매나사스 콘도**

**\$200,000**

방1/화1  
쇼핑몰 근처  
New Water Heater & Appliances

**신규 리스팅**

클립턴 싱글홈  
\$900,000  
방4, 화3, 차고1,  
다수 업그레이드 완료

**PENDING**

페어팩스 타운홈  
\$675,000  
방3, 화2.5, 차고1

**PENDING**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600,000  
방/화2.5, 차고1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차고2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 50세 전후, 수익률보다 지속성에 집중하라

## 제이미 다이먼의 투자 철학

JP모건 채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금융 시장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위기관리 철학을 보유하고 있다. 그의 투자 원칙은 수익 극대화보다 '자산 가치의 하락 방어'에 우선순위를 둔다. 화폐 가치 하락과 국가 부채 증가가 지속되는 현 경제 환경에서 그가 제시한 5대 자산은 은퇴를 앞둔 50대 전후 투자자들에게 실무적인 자산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단기적인 설계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장기적으로 바탕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투자의 주요 목적임을 기억하라는 것이 제이미 다이먼의 조언이다.

### ▶자산 보존(Staying Rich)의 관점

50세 전후의 자산 관리는 수익률 제고보다 '자산의 지속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삼원화(Three-Engine) 포트폴리오 구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성장 엔진, 대응 엔진, 방어 엔진이다.

성장 엔진은 주식 중심의 운용을 통한 자산 증식이 주된 목표이고 대응 엔진은 시장 상황에 따른 전술적 자산 배분 및 변동성 관리가 목표가 된다.

방어 엔진은 다이먼이 강조한 실물 자산 및 안전 자산 중심의 가치 보존에 주력하는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의 핵심 혜택은 심리적 안전판 확보에 있다.

주식 시장이 단기에 급락할 때 금, 부동산, 필수 소비재와 같은 실물 기반 자산이 포트폴리오를 지탱하고 있다면 투자자는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시장 회복 시까지 장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된다.

또 실물 자산은 유동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고 이익을 실현하여 안전 자산으로 전이시키는 전문가의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수적일 것이다.

### ▶시스템적 생존을 위한 자산 설계

제이미 다이먼의 5대 자산이 시사하는 본질은 '생존'이다. 금융 위기나 인플레이션 등 거시 경제 리스크 속에서도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는 화려한 수익률보다 시장 기능이 저하되어도 필수 재화가 공급되고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포트폴리오가 어떠한 풍랑에도 침몰하지 않을 견고한 토대 위에 설계되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켄 최이피스 자산관리 대표

## 금·농지·유틸리티·필수 소비재·프라임 부동산 지키고 금융 위기나 인플레이션 등 거시 경제 리스크 대비를 개인은 간접투자·배당주 등 포트폴리오에 활용해 볼 만

▶5대 자산 분석 가치 보존의 근거  
다이먼이 선정한 자산들은 희소성, 필수성, 그리고 통화 정책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먼저 실물 금(Physical Gold)이다.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헤징'이 주된 목표다.

금은 역사적으로 화폐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완해 온 자산이다. 다이먼은 파생 상품 형태인 금 ETF보다 실제 점유가 가능한 '실물 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기능 마비나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생산적 농지(Agricultural Land)다. 필수 재화 생산의 기반이 되는 것이 농지라고 할 수 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는 확대되는 반면 경작 가능한 토지와 수자원은 제한적이다.

특히 단순한 토지 소유를 넘어 '수자원 이용권(Water Rights)'이 확보된 농지는 가치가 높다. 농지는 경기 대공황기에도 실물 작물을 생산하며 가치를 유지한 이력이 있는 생존 필수 자산이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필수 유틸리티 인프라다. 독점적 현금 흐름을 갖고 있

다. 전기, 수도, 가스와 더불어 현대 사회의 데이터 센터 및 통신 타워는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수요가 발생하는 필수 서비스다.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경우가 많으며 인플레이션 발생 시 서비스 요금에 비용 상승분을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방어적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필수 소비재 우량주도 가치 보존을 위한 주요 자산군에 들어간다. 경기 침체기에도 소비자가 구매를 중단하기 어려운 의약품, 생필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강력한 브랜드와 유통망을 갖춘 기업들은 화폐 가치 하락 시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

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프라임 지역의 부동산이다. 입지의 희소성이 중요하다. 뉴욕 맨해튼이나 주요 대도시 중심가처럼 물리적 공급 확장이 불가능한 핵심 지역의 부동산이다. 입지의 대체 불가능성과 견고한 임차 수요가 결합되어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우상향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단순한 건물 소유가 아닌 지리적 독점력 확보를 의미한다

### ▶포트폴리오 반영 및 실행 전략

개인 투자자가 농지나 대규모 인프라를 직접 취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 관점에서는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자산 배분 모델을 제안한다. 먼저 실물 자산의 비중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10% 내외를 실물 금과 같은 하드 애셋(Hard Asset)에 배정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단기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극심할 때 전체 자산 가치의 붕괴를 막는 '댕'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다음은 간접 투자 수단(REITs 및 Funds)을 활용하는 것이다. 직접 매입이 어려운 자산은 상장 리츠(REITs)나 전문 사모 펀드를 통해 편입할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임대료를 받는 기업이나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통신 타워 리츠에 투자한다.

프라임 부동산도 핵심 상업 지구의 오피스나 데이터 센터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리츠를 선별하여 포트폴리오 구성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배당 성장주를 통한 현금 흐름 확보 전략을 함께 가져간다. 포트폴리오의 약 30%를 25년 이상 배당을 증액해 온 필수 소비재 우량주로 채운다. 하락장에서의 방어력이 높으며 정기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자산 배분 모델을 제안한다. 먼저 실물 자산의 비중을

## 맨션세로 건축 허가 40% 급감

LA시 도입 전 2018~19년 대비  
단독 45%·아파트 27% 줄어  
세금 부담에 계획 추진 주저

LA의 노숙자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 이른바 '맨션세'가 도입된 지 약 3년 가까이 되

어가는 가운데, 이 정책이 오히려 주택 건설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류 관 연구원은 맨션세 도입 이전인 2018~2019년과 비교할 때 LA시의 전체 건축 허가 건수가 지난 2024년 40% 급감했다고 밝혔



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주택 건축 허가는 27%, 단독주택은 45% 줄었다. 개발업자들이 향후 매각 시 발생할

추가 세금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 등 재무적 위험을 우려해 중간 가격대 프로젝트까지 추진을 주저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맨션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LA주태국 집계 기준 1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판 연구원은 투자 위축으로 인해 오히려 주택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매각 시 수백만 달러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LA 대신 버뱅크, 롱비치, 패서디나 등 인근 도시를 선택할 여지가 훨씬 더 컸다는 것이다.

맨션세 적용을 받지 않는 LA카운티 내 87개 인근 도시와 건축 허가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베벌리힐스·패서디나·레돈도비치 등 주변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단독주택과 별채(ADU) 허가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반면, LA시 내에서는 건설 활동이 급감했다.

유현식 기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1465 Hampton Hill Cir, McLean, VA SALE \$1.25M

6501 Divine St, McLean, VA COMING SOON \$2.825M

3883 Billberry Dr, Fairfax, VA UNDER CONTRACT \$1.25M

1808 Old Meadow Dr, McLean, VA UNDER CONTRACT SALE

5280 Julie Star Dr, Centreville, VA SOLD \$689,000

8110 Squirrel Run Rd, Springfield, VA SOLD \$625,000

사업체 매매 델라샵(DC) \$150K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올 거울/바넌 북에 파견 나올 주택원 3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주인 환영	2월 ~ 5월 입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렌트
7004 Eastern Red Cedar Ln, McLean, VA NEW	바로 입주 가능	\$6,000 방 3화 3+1, 집 전체 마루, 맥클린 교통학교/다운타운 갈아갈 수 있는 거리.
1423 McLean Mews Ct, McLean, VA	바로 입주 가능	\$5,500 집 전체 업그레이드 된 차고 1 타운 홈, 방 3, 화 3+1, 카펫 없음, 통행로 우중/맥클린 교통
4126 Timber Log Way, Fairfax, VA, 22030 NEW	3/1 입주 가능	\$2,400 방 2, 화 1, 지어있는 2층 타운 홈, 밝은 톤, End Unit, 주변 상권 편리, Willow Spring ES
1802 Pollard Terrace, Vienna, VA NEW	주재원 (2+1년), 마켓에 내 놓지 않고, 9년째 공실 없이 연결	주재원 (2+2년)
8872 Ashgrove House Ln, Vienna, VA NEW	NEW	NEW
8540 Harvest Oak Dr, Vienna, VA NEW	NEW	NEW
6518 Alexis Ln, Springfield, VA NEW	NEW	NEW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2025 Return

투자 수익률

T X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 종교 멀어지자 외로움 확산

하버드대 보고서 발간  
절반이 "외로움 느낀다"  
일요일 영업 제한법 부활  
혼인 불이익 제거 등 제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경진 중심의 종교일수록 인공지능이 장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진이 미국 사회의 외로움 확산이 종교 공동체 내 교류 축소와 시민 참여 감소, 사회적 관계 약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는 2023년 5월 비백 머시 당시 공중보건국장이 발표한 '외로움과 고립의 전염병' 경고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진행됐다. 하버드 인간변영 프로그램은 지난해 말 연구를 발표했으며 올해 들어 이를 업데이트했다.

연구진은 최근 정책 논의에서 "공동체와 소속감의 위기가 상대적으로 간과돼 왔다"고 지적했다. 연구 업데이트는 "일부 지표에서는 현재 미국인의 절반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보고하며 그 비율은 특히 젊은 층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다.

업데이트는 또 혼인율과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점과 함께 종교 소속과 종교 참여, 기타 시민 참여 형태 역시 급격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는 단순히 안타까운 현상을 넘어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단절과 외로움은 불행감과 우울, 불안, 나아가 조기 사망 증가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기독교와 공공 생활 센터의 마이클 웨어 대표는 "시민 참여 감소에 대해 단순히 뉴스 소비나 소셜미디어에서의 정치 콘텐츠 소비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웨어 대표는 "정치가 오락의 한 형태로 부상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참여의 장으로서 정치와 시민 생활이 쇠퇴하면서 외로움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외로움이라는 진단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경제·기술·정치 시스템과 규범이 만드는 소외"라고 강조했다.

종교 공동체와 혼인의 쇠퇴는 외로움 확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머시 전 공중보건국장은 전통적 구조 밖에서 사회적 연결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하버드 연구진은 전통적인 구조인 종교 공동체와 혼인이 여전히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종교 공동체와 혼인은 거의 모든 사회에 존재해온 가장 오래된 공동체 형태이며 번영을 촉진하는 면에서 다른 어떤 소속 형태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종교 참여 감소는 신앙 부족뿐 아니라 직장 과로, 자녀의 스포츠 활동 등 세속적인 활동과 경쟁하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혼인 감소에 대해서는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재정적 혜택을 더 많이 받는 복지 구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인공 피임의 발전으로 성관계와 출산의 연결 고리가 약화하면서 전통적인 혼인의 정당성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구진은 "대부분의 미국인은 여전히 결혼을 원한다"며 이를 가능하게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는 복지 프로그램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혼인의 불이익 제거와 지역 단위에서 일요일 영업 제한법 부활 등이 제시됐다. 이는 유럽 일부 지역과 이스라엘에

서 토요일 안식일에 시행되는 제도처럼 예배 참석을 돕고 모든 노동자에게 휴식일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경제적 요인도 중요한 배경으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튼튼한 가정과 깊은 우정, 공동체 참여는 충분한 여가 시간과 재정적 안정, 낮은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노동의 존엄성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네 가지 기초 요소는 특히 대학 학위가 없는 이들에게서 감소했다. 주요 요인으로는 실질 중위임금의 정체나 하락, 불규칙한 근무, 불안정한 계약이 특징인 저숙련 일자리의 확산이 꼽힌다.

연구진은 "저임금과 불규칙한 근무 환경으로는 안정된 가정과 종교 공동체, 시민단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 수준이 낮은 층에서 안정적 일자리 상실의 방식 자체를 붕괴시키며 자살, 약물 과다복용, 알코올 남용 등 '절망의 죽음'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청년층의 외로움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이는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 사용 증가뿐 아니라 어린 시절 놀이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 연구진은 학업 시간 증가와 성인이 감독하는 과외 활동 증가, 불안감이 높은 양육 방식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청년층의 대면 교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유희 객원기자

## 라캉 "욕망 극한 추구는 숭고함"



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왕의 결정에 도전한 행위를  
헤겔은 의도적 범죄로 인식

무의식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다. 무의식이란 용어의 사용은 셸링이란 설도 있고, 라이프니츠라는 설도 있고, 프로이트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자는 무의식을 정신분석학에 활용한 프로이트를 꼽는다. 그는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의 환자들이 신경증(노이로제)으로 고통받는 것을 목격하고, 처음에는 최면술에 의존하여 환자를 치료하다가 환자의 내면에 무의식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무의식은 의식으로 나타내질 못하고 의식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인간에게는 자아와 원초적 자아 그리고 초자아가 있는데 원초적 자아가 소위 무의식으로 발현되는 것이고, 초자아는 도덕적인 관념으로 표상된다고 한다.

즉, 문지기 역할을 하는 자아가 원초적 자아의 상태를 파악하여 비도덕적이면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억압하여 무의식 속에 남아있도록 억압한다고 한다. 억압당한 무의식은 무의식 세계 속에서 결핍으로 남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있다고 한다.

자크 라캉은 무의식의 세계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고, 언어학자인 소쉬르는 언어는 랑그라는 언어의 규칙과 파롤이라는 말로 구성된다고 했다. 즉,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랑그라는 언어의 규칙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령, 바둑을 둘 수 있는 것은 바둑의 규칙(랑그의 역할과 비슷함)에 따라 흰 돌과 검은 돌의 지락대결(파롤의 역할과 비슷함)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말(대화)을 규칙도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주어와 동사, 서술어, 목적어가 구성되어야 말이 성립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소쉬르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는 서로 다른 차이가 있어야 선별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 가령, 바나나라고 했을 때, 바나나를 지목하는 기표라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 기표에 해당하는 기의(실제

사물)가 있어야 단어로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기표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차이가 있는 단어를 선택하고, 그것을 바나나라고 정의하면 이것은 기표가 되고, 실제 바나나는 기의가 되는 것이다. 기표는 반드시 기의를 만나야 의미를 발생시킨다. 즉, 기표에 따라서 기의는 인위적으로 선택된다는 것이다. 소쉬르는 차이가 나는 기표의 선택이 우선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자크 데리다는 차연(차이+지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차이가 곧바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지연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표와 기의가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자크 라캉은 앞서 언급한 무의식의 결핍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기표를 찍어낸다고 한다. 이것이 '기표의 연쇄'이다. 그러나 기표와 기의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진다고 표현한다. 즉, 무의식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꿈이라는 것은 무의식 상태에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면 간접적으로 무의식의 상태를 알 수 있어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가령, 그가 경험한 것과 꿈의 내용을 자유 연상 기법으로 퍼즐을 맞추어 나가면 궁극적으로 내면에 숨어있는 무의식이 내용을 의식 밖으로 꺼낼 수 있고, 환자가 이것을 인식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프로이트는 이 방법으로 많은 환자를 치료했다고 한다. 이것이 정신분석학의 시작이다.

실제로 정신분석학 학회를 설립한 것도 프로이트다. 이 학회에는 아들러와 카를 융 그리고 자크 라캉도 참여했다. 세계적 심리학의 거두들이 모두 참여한 학회였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욕망은 성적 욕망이란 것이었다.

이 성적 욕망이 억압당하면, 그 에너지를 또 다른 파괴적 에너지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했다. 성적 욕망을 리비도라고 하고, 파괴적 에너지를 타나토스라고 한다.

즉, 리비도를 억압할수록 타나토스는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넘치는 에너지를 예술 활동이나 학술적 연구 활동 또는 스포츠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프로이트는 주장했다.

## 교황청 "트럼프 평화위에 불참"

교황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황청의 최고 외교 책임자인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은 18일 국제적

위기 상황은 유엔(UN)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평화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을 이끌어낸 자신의

가자 구상에 따라, 가자의 임시 통치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로 평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그는 자신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의 역할을 전 세계 분쟁 해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끄는 교황 레오 14세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반복적으로 비판해 왔다.

###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MD 자이언트 No. 1 에이전트

##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 언제든지 상담원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 MD Ellicott City

## Snoopy Pet Grooming

###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 443-759-9798

# 부동산 재테크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임대주택 관리의 20년 전문!**

**메릴랜드, 디씨 임대 주택 면허,  
주택검사 대행해 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 드립니다.**

**부동산의 모든 상담**

**앰플러스 부동산, 비키리 브로커**

**Tel: 703-231-5572**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20년 연속 다이아몬드클럽 멤버  
메릴랜드 주택 납 성분 검사 인스펙터**



**앰플러스 부동산 / 탐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청라국제도시의 매력과 미래가치



**준리**  
콜드웰뱅크 베스트 부동산

**교통망 확충·개발 호재  
미주 분양 39만 불부터**

청라국제도시는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로, 2003년 처음으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중심이다. 정부와 인천시는 청라를 국제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반 시설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청라는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미래 가치가 보장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완료된 호재 외에도 진행 중인 대형 호재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프리미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

역이다. 송도, 청라, 영종 세 곳 중 유일하게 강남권으로 직접 접근이 가능한 청라는 최고의 프리미엄급 국제도시라고 할 수 있다. 청라의 상징인 20만 평의 호수공원과 편리한 커널웨이 스트리트몰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산책로와 외식 공간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이 가능하다. 청라 중심상업지구로서의 역할도 확실하다.

지난해, 나는 청라를 직접 답사하였고, 이곳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 호수공원 옆에 위치한 오피스텔 “아메리칸 시티 청라”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자연 속에서의 편안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정 중앙에 위치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2027년 개통 예정인 7호선 전철역이 단지 바로 옆 100m에 있어 교통 편리성 또한 뛰어났다. 공항철도 9호선과의 직결도 계획 중에 있으며,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가 GTX D, E 노선도 추진되고 있다. 2026년 초 개통될 “청라하늘대교”는 인천공항과 청라를 연결하여 더 많은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교통 호재들이 청라국제도시의 주거시설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아메리칸 시티 청라”는 20만 평의 호수공원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주거시설이다. 인근 경명초등학교는 매우 가까운 도보거리이다. 초·중·고, 공·사립, 학세권을 모두 갖춘 ‘트리플 세권’으로 불리며, 프리미엄이 보장된 투자이라 한다. 청라의 랜드마크로 예정된 ‘시티타워’는 호수를 둘러싼 다이아몬드 입지에서 세워질 예정이다. 한국에

서 두 번째로 높고,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전망 타워가 될 것이며,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핵심 명소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현재 아메리칸 시티 청라의 평균 분양가는 약 44만 달러다. 이번 미주 분양에서는 정상가에서 7% 할인이 적용된 약 39만 달러부터 공급된다. 대출을 받아 구매하시면 이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한국의 주거시설을 구매할 수 있다. 스크린골프, 피트니스 센터, 라운지 카페 등의 아파트급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미주 고객에게는 대형 냉장고와 세탁기, 안방 침대와 소파 세트 등 무상으로 제공되는 특별 혜택도 있어 경쟁력 있는 상품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부동산 이야기

트럼프의 모기지 인하, 시장은 왜 냉담한가?



**애니윤**  
콜드웰뱅크 베스트 부동산

**금리 인하에도 매물 잠김 현상  
내 집 마련 타이밍 준비가 좌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구매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을 통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담보보증권(MBS)을 추가 매입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정부 보증 기관이 시장에 직접 개입해 금리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이 공격적인 행보는 언뜻 바이어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처럼 들린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기대와 달리 냉담하다. 정책 발표 직후 일시

적으로 하락했던 모기지 금리는 이내 반등하며 냉정한 현실을 투영했다.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월가의 분석가들은 이를 구조적 해결책이 아닌 단발성 이벤트로 치부하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의 판더멘털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시장이 이토록 차갑게 반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는 ‘매물 잠김 효과(Lock-in effect)’에 있다. 통계에 따

르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70%가 이미 5% 이하의 저금리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의 금리 환경에서 소폭의 금리 인하만으로는 이들이 기존의 저금리 혜택을 포기하고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어렵다. 즉, 금리가 내려가도 팔 사람이 없는 구조적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한, 금리 인하나 주택 가격 안정이나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난망하다는 뜻이다. 기대를 모았던 ‘모기지 휴대권

(Portability)’ 역시 복잡한 법적·제도적 장벽 탓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이번 정책은 단기적인 심리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겠으나 주택 시장의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러한 불확실한 정책과 시장의 변화 속에서 필자가 현장에서 늘 강조하는 진리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집 마련의 최적기는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준비와 필요가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이들이 금리가 바닥을 치는 순간이나 가격이 최저점에 이르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만, 냉정하게 말해 시장의 저 점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확인되는 신기루와 같다. 부동산은 투기

적 자산이기 이전에 가족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시장의 지표가 출렁이고 정책이 쏟아져 나와도, 결국 나에게 집이 필요한 시점 결혼, 자녀의 교육, 혹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의 필요성이 가장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되어야 한다. 이자율이 조금 높다면 추후 재융자를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놓쳐버린 ‘나의 집’과 그곳에서 보낼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시장의 변화에 일회일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가족의 생애 주기에 맞춘 장기적인 관점을 갖기를 권한다. 타인의 예측이나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기대기보다 나의 필요에 집중할 때, 집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삶을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보루가 되어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부(富)의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KB금융지주의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가구는 2011년 이후 연평균 10%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왔다. 또한 주식시장 호황과 부동산 가격 상승,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약진이 맞물리며 금융 자산 100억원, 3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자산가(UHNWI)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고민의 결도 달라진다. 이들은 단순히 큰 자산의 운용을 넘어 복잡한 자산 구조를 전략적으로 설계·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AI를 비롯한 기술 발전은 정보

접근성과 분석 역량을 높이며 자산관리 공식의 변화를 가속하고 있다. 초고액 자산가의 의사결정은 더는 수익률 하나에 집중되지 않는다. 상장주식과 채권 중심의 전통적 운용에서 벗어나 비상장·대체자산 등으로 투자 대상이 다중화·구조화되고 있다. 동시에 높은 수준인 상속·증여세 부담 속에서 합법적 절세 구조와 장기 승계 전략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금융 선진국에서는 자산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관리하는 관행이 자리잡았고, 이를 전담하는 구조가 패밀리 오피스(Family Office)다. 투자 전략과 함께 세무·법률·승계·지배구조 전반을 아우르며 가문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단기 성과보다 세대를 관통하는 구조 설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초고액 자산가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금융회사들이 관련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

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적지 않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이 아니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금융사 소속 조직은 이해 상충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도 흐름은 분명하다. 초고액 자산가는 자산관리 시장의 변방이 아니라 하나의 축으로 자리잡았다. 이들의 관심은 단기 수익률을 넘어 리스크 관리, 세대 간 이전, 가문의 의사결정 구조 안정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산관리 산업 역시 이에 맞춰 조직과 서비스 구조를 재편하는 중이다. 패밀리 오피스의 가치는 단기간의 성과로 단정하기 어렵다. 속도를 높일 때와 늦출 때를 구분하는 판단,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신뢰 축적이 성패를 가른다. 자산관리의 초점이 ‘얼마를 벌 것인가’에서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넘길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초고액 자산가 시장의 확대는 단순한 부의 증가를 넘어 금융산업 구조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대를 넘어 작동하는 신뢰가 뒷받침돼야 정교한 자산관리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심동규의 마켓 나우

초고액 자산가가 바꾸는 자산관리 공식

한국투자증권 PB전략본부 상무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703.486.6082

<b>알링턴 싱글홈 \$1,600,000</b> 4bd, 3bt, 3056sf, built in 2000	<b>첸들리 싱글홈 \$1,089,000</b> 4bd, 3.5bt, 4237sf, RT-50 사우스 라이딩 경계선	<b>웨스트 스프링필드 터옴홈 \$630,000</b> 4bd, 3.5bt, 2247sf, 하이스쿨 주변, 조용한 주택가
<b>페어팩스 신축 콘도 \$664,000</b> 3bd, 2.5bt, 2481sf, 2026년 6월 완공 예정 웨스트필드지역	<b>페어팩스 싱글홈 \$890,000</b> 4bd, 3bt, 3038sf, 우스하이 도보거리 집전체 리모델링	<b>장미원</b> Associate Broker Licensed VA/DC/MD

VA/DC Office (Vienna Tysons) 438 Maple Ave. E, Vienna, VA 22018  
MD Office (One Bethesda) 7373 Wisconsin Ave. #1700, Bethesda, MD 20814



**정성웅 보험**



# Term Life

## 정성웅 보험



생명 보험은 단순 비교 만으로는  
각 보험사의 특징과 저렴한 보험료를  
찾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저희가,

**5개 보험회사의 7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중**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시도록 비교해 드립니다!



Male (Preferred Best)		\$500,000			
	30세	40세	50세	60세	
10 yr.	\$12.67	\$17.31	\$39.52	\$108.50	
20 yr.	\$18.16	\$28.04	\$69.00	\$199.53	

Female (Preferred Best)		\$500,000			
	30세	40세	50세	60세	
10 yr.	\$10.56	\$15.14	\$32.49	\$72.14	
20 yr.	\$15.63	\$23.79	\$54.14	\$139.62	

Male (Preferred Best)		\$500,000			
	30세	40세	50세	60세	
10 yr.	\$16.05	\$21.54	\$49.84	\$127.62	
20 yr.	\$23.23	\$34.64	\$82.62	\$224.37	

Female (Preferred Best)		\$500,000			
	30세	40세	50세	60세	
10 yr.	\$13.34	\$19.40	\$41.64	\$91.69	
20 yr.	\$18.16	\$28.73	\$64.11	\$160.22	

\*상기 보험료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경제적 안전망입니다.

**지금 연락 주세요!**

# 정성웅 생명 보험

**알려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영어안내 목소리가 나오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직원과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항상 전화 주셔서 감사 드리며, 더욱 친절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 딱 좋은 보험을 찾아 드리는



**정성웅 보험**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체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 올림픽 우승한 여자 아이스하키, 트럼프 초청 거절

### 금메달 따고도 백악관 안 간다 학업·소속팀 일정 이유로 사양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금메달을 따낸 미국 대표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을 거절했다.

AP통신은 24일 이같이 보도하며 “우리의 업적을 인정해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올림픽이 끝난 뒤 학업이나 소속팀 일정 등으로 인해 초대에 응할 수 없게 됐다”는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입장을 전했다.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이어 “선수들은 (백악관에서) 업적을 인정하고, 초대해주신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교적 정중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를 사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도 초청했으며 남자 대표팀이 초대에 응했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P통신은 “백악관 역시 남녀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초청과 관련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주요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 우승한 팀을 백악관에 초대하는 것이 관례이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몇몇 팀들이 백악관 방문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였던 2018년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에서 우승한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백악관에 초대했으나 필라델피아 선수들 다수가 백악관 행사 참석을 거부하자, 백악관이 초대 자체를 취소한 바 있다.



금메달을 따낸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들이 시상식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David W Cerny-로이터]

## ‘월드컵 치안 불안’ 지우려 대통령도 나선 멕시코

### 월드컵 개최지 인근 마약조직 폭주 FIFA 안전확보 방안 재검토 요구 세인바움 “완전한 안전 보장 가능”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개막을 4개월가량 앞두고 공동 개최국 멕시코의 치안 문제가 성공 개최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FIFA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멕시코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기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멕시코는 현재 전국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최대 폭력 조직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수장 네메시



세인바움

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일명 엘 멘초)가 군 당국 작전 과정에서 사망한 이후 조직원들의 보복 행위로 주요 도시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중서부 할리스코주(州)에서 시작한 소규모 사태는 인근 12개 지역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최소 25명의 멕시코 국가방위대원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축구대표팀 2경기를 포함해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4경기를 치를 과달라하라의 이번 사건의 중심지 할리스코의 주도이자 CJNG의 주요 근거지다. 한국이 베이스캠프로 활용할 ‘치바스 베르데 바에’ 훈련장은 과달라하라 시내 소규모 사태 중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아크론 스타디움. 지역 소규모 사태로 어수선하다. [로이터=연합뉴스]

심지로부터 불과 10km 가량 떨어져 있다. 조별리그 경기장인 에스타디오 아크론 또한 베이스캠프와 5km 거리다. CJNG 조직원들은 두 곳과 인근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망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컵 개최지 인근에서 내전에 가

까운 상황이 발생하자 FIFA도 노심초사다. 스페인 스포츠매체 마르카는 “FIFA가 (소요 사태와 관련해) 공식 논평을 자제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우려’를 공유하는 상황”이라면서 “멕시코 조직위원회에 ‘월드컵 안전 확보 방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멕시코 주요 카르텔의 경우 마약 밀매 등을 통해 축적한 자금으로 군대 수준의 무기와 병력을 갖췄다”면서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멕시코 정부가 치안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해 축구 관계자들 사이에서 “FIFA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개최

지 및 일정 변경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멕시코 정부는 상황 수습을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파블로 레무스 할리스코 주지사는 25일 “과달라하라가 월드컵 개최권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면서 “멕시코 내 세 곳의 개최 도시는 조만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또한 하루 전 “월드컵 경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한 ‘완전한 형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송지훈 기자

## 시범경기부터 뜨겁다

### 이정후 3경기 연속안타, 타율 0.333 4번타자 송성문, 볼넷으로 첫 출루

메이저리그(MLB) 3년차에 접어든 ‘바람의 손자’ 이정후(28·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시범경기에서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며 새 시즌 전망을 밝혔다.

이정후는 25일 미국 애리조나주 템

피의 템피 디아블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LA) 에인절스와 시범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앞선 두 경기에 우익수로 나선 것과 달리 주 포지션인 중견수로 복귀했고, 시범경기 첫 타점까지 기록하며 신바람을 냈다. 3경기 성적은 타율 0.333(9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이다.



시범경기에서 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좌소 의 타격감을 선보인 이정후. [로이터=연합뉴스]

1회 첫 타석을 중견수 플라이로 마친 이정후는 0-0이던 2회 2사 1,3루 찬

스에서 맞이한 두 번째 타석에 좌전 안타를 때려내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5회초 세 번째 타석은 유격수 양 땅볼로 마쳤다. 이정후는 6회말 수비를 앞두고 교체돼 더그아웃으로 물러났다. 샌프란시스코는 에인절스에 4-1로 이겼다.

3년차에 접어든 올해는 이정후의 빅리그 이력에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데뷔 시즌인 2024년 부상으로 37경기 출전에 그친 그는 지난해 주전 중견수로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타

율(0.266)과 수비력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정후에게 6년간 총액 1억1300만 달러(약 1620억원)를 배정한 샌프란시스코에 확신을 심어줘야 할 시점이다.

새 시즌 타순과 포지션은 미정이다. 올 겨울 샌프란시스코가 골드글러브 출신 중견수 해리스 베이더를 추가 영입해 이정후가 우익수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타순 또한 세 번의 시범경기에서 6번-4번-1번으로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송지훈 기자

**REALTY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후원 투자 리스닝**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b>COMING SOON</b> Dayton, MD \$1,150,000 싱글홈 방4, 화3, 4600 sqft	<b>UNDER CONTRACT 1 day</b> Silver Spring, MD 싱글홈 being renovated	<b>UNDER CONTRACT 1 day</b> Potomac, MD \$960,000 싱글홈 방4, 화4.5, 차고1	<b>UNDER CONTRACT 1 day</b> Clarksville, MD \$759,000 타운홈 방3, 화3.5, 차고
<b>UNDER CONTRACT</b> Ellicott City, MD \$460,000 타운홈 방3, 화3.5, Recently Renovated	<b>SOLD</b> Hanover, MD \$450,000 타운홈 방3, 화2.5, 차고1	<b>SOLD</b> Catonsville, MD \$329,000 타운홈	<b>COMING SOON</b> Rosedale, MD \$329,000 타운홈 방4, 화3.5, Renovated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NT** 집을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b>RENT</b> Olney, MD 월 \$3,600 타운홈 화3, 화2.5, 2019년	<b>RENT</b> Hanover, MD 월 \$3,400 타운홈 방3, 화2.5, 차고2	<b>RENTED</b> Laurel, MD 월 \$3,000 타운홈 방3, 화3.5	<b>RENTED</b> Hanover, MD 월 \$3,000 타운홈 방3, 화3	<b>RENTED</b> Severn, MD 월 \$2,700 타운홈 방3, 화2.5	<b>RENTED</b> Columbia, MD 월 \$2,600 타운홈 방4, 화3.5
--	--	--	---	--	--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one) is on top of it (or things); (무엇에) 정통하다

(Jim is talking to Terry at work...)

(짐이 직장에서 테리와 이야기를 하며...)

Jim: So did Mr. Lee fix your file cabinet in your classroom?  
 짐:그래 미스터 리가 교실 서류 캐비닛 고쳤어?  
 Terry: Yes he did. He fixed the lock and gave me a new key.  
 테리: 응 고쳤어. 자물쇠도 고치고 새 열쇠도 줬어.  
 Jim: And how about the electrical problem?  
 짐: 그리고 전기 문제는 어떻게 됐어?  
 Terry: He fixed that too. He's on top of things.

테리: 전기도 고쳤어. 미스터 리 선수던데.  
 Jim: He is. I'm glad he started working here.  
 짐: 맞아. 미스터 리가 여기서 일하게 돼서 다행이야.  
 Terry: I don't know a thing about fixing anything electrical.  
 테리: 전기 관련한 건 난 완전 속맥이야.  
 Jim: I hear you. I don't either.  
 짐: 나도 그래. 하나도 몰라.

Terry: It's great being able to use the CD player in class because the students pick up so much English by listening as well as talking.  
 테리: 교실에서 CD 플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잘 됐어. 학생들은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듣는 것으로 영어를 배우는 게 정말 많거든.  
 Jim: I know. 짐: 알아.

기억할만한 표현

▶ (one) doesn't know a thing about (something); (무엇을) 전혀 모른다.  
 "My grandmother doesn't know a thing about computers." (우리 할머니는 컴퓨터는 전혀 몰라.)  
 \*I hear you: 나도 그래. 동감이야.  
 Jim: "It's so hot today. I need something to drink."  
 (짐: 오늘 정말 덥다. 뭘 좀 마셔야겠어.)  
 Roger: "I hear you. I need something to drink too."  
 (라저: 나도 그래. 나도 뭘 좀 마셔야겠어.)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열쇠

(1)메밀로 만든 국수를 냉국이나 김치국 따위에 말아 먹조. 함흥식은 국물 없이 생선회를 곁들여 맵게 비벼 먹조 (2)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4)담배 피우는 것을 금지함 (5)좁고 기름하게 만들어 한 짝만 단 창문 (6)로켓이나 제트 엔진을 추진력으로 하여 목표물에 닿아 폭발하도록 만든 무기. 유도탄 (7)땅에 박힌 채 썩은 소나무의 그루터기 (9)임금의 얼굴 (10)시골에서 서울의 벼슬아치에게 선사하는 물건 (13)일상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모든 예의와 절차. □□□절 (15)좋은 약은 입에 씹. 충언(忠言)은 귀에 거슬리나 자신에게 이로움. 양□□□ (18)소의 작은창자. ~ 전골 (20)주로 여자가 아래웃으로 입조 (21)사소한 이익을 탐내어 담벼드는 사람. 그는 먹는 데에는 ~지만, 일하는 데에는 배돌이다 (23)어려움과 쉬움의 정도 (24)투수가 포수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공을 던지는 일 (25)유월에 잡은 새우로 담근 젓 (26)임금이 입던 정복. 가슴과 등과 어깨에 용의 무늬를 수놓았다 (27)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

세로열쇠

(1)식품이나 음료를 시원하게 보관해 주조 (2)노래를 즐겨 부름 (3)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안목 (4)금액을 밝히지 않고 봉투에 넣어서 주는 돈 (5)작은 바가지. 그렇게 놀다가는 ~ 차기 딱 좋겠다 (8)어떤 사람의 병을 맡아서 치료하는 의사 (9)개인이 자질구레하게 쓰는 돈 (11)헤엄칠 때 발등으로 물 위를 잇따라 치는 일 (12)말로써 약속함 (13)대강 어렵쳐서 여섯이나 일곱 (14)야구에서, 안타가 되지 못하는 평범한 타격. 그 선수는 네 타석 모두 ~로 물러났다 (16)큰 돌을 몇 개 돌려 세우고 그 위에 넓적한 돌을 덮어 놓은 선사 시대의 무덤 (17)예전에, 한 사람이 안에 타고 돌이나 냇이 들어가 메넌. 조그만 집 모양의 탈것 (19)명태의 참자에 소금, 고춧가루 따위의 양념을 쳐서 담근 것 (20)조선 시대에, 죄인의 불기를 치는 데 쓰던 곤장 (21)예전에, 머리에 쓰던 의관. 벼슬이나 직위 (22)매우 빠른 속도로 한두 시간 정도의 짧은 기간에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흐르는 좁은 표면 해류. □안□ (24)절벽에서 곧장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

스도쿠

5		3		8	2		4	6
	1	9						2
		8	7	6	9		5	
8		5	2			1		
3				1		6	8	
7			5				9	
1		6					2	9
4			6					3
	3	7	4	2	1			8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9	5	1	2	4	7	3	6
3	1	4	5	6	9	2	8	4
6	2	4	3	7	8	9	5	1
4	6	2	8	3	5	1	9	7
5	8	9	7	1	6	4	2	3
7	3	1	9	4	2	5	6	8
1	5	3	6	9	7	8	4	2
2	7	8	4	5	3	6	1	9
9	4	6	2	8	1	3	7	5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 한식



### 한식의 품격

4명의 셰프가 빚어낸 정통의 맛을 전합니다.

**깊이 있는 정통 한식의 맛!!**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헤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즉석 칼국수 신메뉴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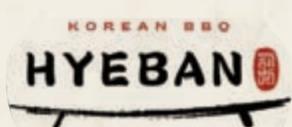


Weekly Special

따뜻한 즉석 칼국수와 깊은 맛의 닭볶음탕 런치 뷔페에서 만나요.~

월, 화, 목, 일  
수요일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인**

홀 서버 (Hall Server)

# “모바일 앱으로 손님 폰에 세일 광고 및 마케팅 문구 전송, 무제한, 무료”



- 멀티매장 + 창고관리
- 간편한 재고관리
- 고객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 모바일 앱을 통해 손님폰으로 세일 전송
- 기존 POS 시스템에서 재고 데이터 이전 가능
- 인터넷이 끊겨도 작동하는 오프라인 모드
- 100,000개 이상의 뷰티 아이템 데이터 내장
- 매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가능

“모바일 앱 세일 광고 품목,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구매, 결제 가능”

“세일즈 에이전트 모집중!!  
문의: [hr@worldbankcard.net](mailto:hr@worldbankcard.net)”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WWW.WORLDBANKCARD.COM](http://WWW.WORLDBANKCARD.COM)  
[WWW.IMIDUS.APP](http://WWW.IMIDUS.APP)

24시간 365일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2월  
구  
인  
광  
고

###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런칭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배내뜻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 P & A USA Inc )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 바른 기사만 담겠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 구인

####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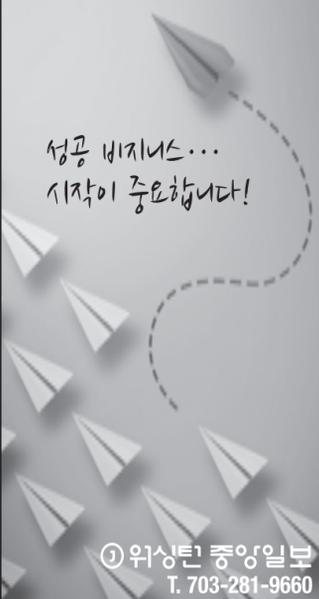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성공 비즈니스...  
시작이 중요합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 구인

####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 금매

####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 매매

확실한 수익보장 델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음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 메디케어

####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플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 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 메릴랜드

### 구인/사무/직원모집

식품 도매 회사에서 직원 구함  
주 5일 근무, Full time or Part time  
사무직 0명, 배송기사 0명  
Paid time off, Medical insurance 제공  
eni@enidist.com  
Essex MD (301)477-4010

메릴랜드 몽고메리물 시계 및 주얼리 샵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 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오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  
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  
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  
에서 함께 일하실 이종언어(영어 또는 스페  
니쉬)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 세탁/이미용/기타

중고차 팝니다.  
현대 산타페 2020, 실버, 8만 마일,  
상태 매우 양호, \$18,000  
240-205-4949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스키용 밥기계(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3. 튀김(덴뿌라) 기계 300불  
4. 그릴 스톤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요망)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2018년 포드 트랜짓 250, 인슐레이션된  
쿨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베이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열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글렌버니 리커스토어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구합니다. 유경력자, 파트타임  
443-262-1813

DC - 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6 am - 2 pm) \$18/hr + tips  
703-785-8763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 드  
리겠습니다.  
703-869-5919

손 사이딩 올드 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홍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엘리콧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서버 하실  
분 구합니다.  
▶443-420-3096

영어 가능한 델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 (월 - 금, 6am - 3pm)  
703-300-7207 (문자)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낱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  
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 싱글/타운/방렌트

메릴랜드 엘리콧시티에서 15분 거리  
큰 싱글 지하 전체 렌트, 간이 주방, 큰방, 큰  
거실, 큰 욕실, 주차 가능, 유포 \$1,200  
703-231-5572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  
로 근처 싱글룸 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룸 2층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룸 방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룸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 사업체 매매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콧 시티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테켄도장 나간자리,  
2,750 sf  
▶문의 703-534-4989

메릴랜드 솔로몬 아일랜드안에 위치한  
한식당 매매합니다. \$300,000  
최적의 위치, 좋은 수익, 저렴한 렌트비  
804-519-1918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 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곳 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전문/곳 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퀴라이센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공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7.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8.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9.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번 위치
10.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 MD
11. 쿵후티, Bakery 등 다수 리스팅 보유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델리 \$170,000 렌트 \$5,791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 버지니아

### 구인/사무/직원모집

굿피플 USA 사무행정/사업관리 직원모집  
비영리 단체 경력자, 한/영 능통자 우대  
풀타임 (급여는 경력별 협의)  
근무지 McLEAN, VA, 이력서 / 자기소개서:  
▶info@goodpeopleusa.org

탐여행사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 구함  
-센터빌 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info@toptravelusa.com  
▶703-543-2322

우리 아메리카 은행에서 Full Time 텔러를  
찾습니다.  
근무지: 센터빌 지점  
베네핏: 의료보험, 유급휴가, 401K  
자격요건: 합법 신분자  
이력서: hr@wooriamericabank.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보험회사에서 일하실  
풀타임 사무직 직원 구함  
Kmw122@gmail.com  
703-750-2205

(Accountant) Manage daily operations  
of ledgers such as payroll, billings,  
accounts payable & receivable, cost  
allocations: Use accounting programs  
such as Quickbooks and Payroll Relief:  
Financial statements preparation.  
40 hrs/week. Master's degree in  
accounting or related field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and Job  
Location: Michael W. Sim & Company,  
P.C. at 4605 Pinecrest Office Park Dr.  
Suite E, Alexandria, VA 22312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파트타임, 판매 경력자 우대  
문의: 703-309-7885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력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  
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합니  
다. 이중 언어자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  
(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패어팩스에 위치한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  
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  
해 드리는 보험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구합니다. 생명보험 라이선스 소지자  
703-939-2737

CarePeople Home Health RN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  
어 가능자  
이력서: dceyclinic@yahoo.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스핀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력자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  
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  
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션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케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초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김진욱

### 최추신경전문이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 NO.1

###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 브래덕

### 패밀리 치과

###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 구인

## 메릴랜드 베데스타 한방병원에서

###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중앙일보

센터빌, 찬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와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찬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 식당/식품

페어팩스 일식당에서 직원 구함  
-세컨드 스시 셰프  
-서버 (영어필수,페이우대)  
703-628-9168 (문자)

RT-1퀀티고 근처 편의점에서 신원 확실한  
남자 경력자 구함.  
443-618-7141 (문자)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홀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  
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애난데일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 (유/무 경험자)  
제빵사 풀타임 (유경력자)  
703-625-8525

DC - 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 (6am - 2pm) \$18/hr + tips  
703-785-8763

우드브리지 퀀티고 부대에 있는 일식당에  
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구합니다.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델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 (월 - 금, 6am - 3pm)  
703-300-7207 (문자)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파타임  
▶571-991-4172

##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 구함.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 세탁/얼터레이션

알링턴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타임 카운터 보실분  
풀/파타임 얼터레이션 하실분  
571-455-3609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타임 가능하신분  
703-328-3064

##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력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 기타 구인

애견 미용사 구함  
www.givingtreepetresort.com  
givingtree.alison@gmail.com  
▶571-660-8182

InCourage Martial Arts 에서 태권도 사범  
모집합니다.  
버크, 페어팩스, 애쉬번, 퍼셀빌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문의 571-243-7027 (text 가능)

맥클린 한국 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이를 사랑하시는분  
571-235-8997/ 703-505-5760

손 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홀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  
703-944-8433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 싱글/타운홈 렌트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전체 렌트  
방4 화3.5 \$3,200 or 일부 방3 화2.5  
\$2,200  
470-485-1875

1. 매나사스 타운 \$3,400  
(2025년 12월 새집) 2,700 sq, 방4, 화3.5,  
로프트(오피스), 2/4층 텍, 차고 2,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234/66/GMU 근처, 이노베이션  
소프팅물 인공, 교통편리, 센터빌 10마일  
2. 브리스토 타운 \$3,200  
방4, 화3.5, 차고 2, 전부 마루,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Patriot High 최고 학교, 234/  
Sudly manor, near Costco  
▶571-239-6054

애난데일 타운홈 렌트 \$3,400  
방3, 화 3.5, 최신식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된  
집, 화려하게 잘 꾸며 놓은 부엌  
과 화장실, 집 전체 나무 마루, 넓은 테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모텔 하우스 보  
다더 예쁜 집, 교통편리, 즉시 입주  
▶703-477-3114

1. 게이더스버그 타운홈 \$3,300  
방4, 화장실 2  
2. 제섭 타운홈 \$2,800 방3, 화장실 3  
3. 엘리콧시티 타운홈 \$2,750  
방3, 화장실 2.2  
4. 파사데나 타운홈 \$2,600  
방3, 화장실 2/2  
5. 폴롬비아 싱글홈 (반지하) \$1,500  
방2, 화장실 2  
▶301-318-4242 / 443-668-0453

스프링필드 타운홈 렌트 \$3,000  
방2, 화2.2,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편리  
▶703-919-0472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전체 렌트  
방4 화3.5 \$3,200 or 일부 방3 화2.5  
\$2,200  
470-485-1875

##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렌트 \$2,200  
방2, 화2, Top Floor, 밝고 환한콘도, 업 데이  
트한 부엌 (Granite Counter Tops, 고급 캐  
비닛, 고급 SS 주방용구들)  
넓은 리빙룸, 넓은 발코니, 마트 근처, 집 전체  
잘 관리된 예쁜 콘도  
703-477-3114

비엔나 메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2, 차고1, 수영장, 휘트니스 센터,  
물값 포함  
571-271-2457

알렉산드리아 콘도 렌트 \$1,750  
방1, 화1, 주차2, 모든 관리비 포함  
703-863-0321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편리, 즉시 입주 가능  
\$2,250  
301-466-1646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 방 렌트

센터빌 타운홈 작은방 임대 \$700 (유포)  
문의 : 301-928-4125

스프링필드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가구,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분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홈 큰방, 개인욕실 \$1,200  
베이스먼트 전체 \$1400  
571-243-7027 (Text)

로튼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워크아웃, 유포, 방2, 거실, 부엌, 욕실, 세탁  
실, 초중고 걸어서 통학, I-95 1마일,  
즉시 입주 가능  
703-774-4939

실약가든 근처 조용한 싱글홈  
방1, 화1, 출입문 별도  
간단 가구, 취사, 인터넷,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로튼 싱글하우스 반지하 전체 렌트  
\$2,000 (유포), 방3, 거실, 주방,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571-488-5860

스프링필드 싱글하우스 1층 큰방 렌트,  
가족같이 지내실 여자분 환영  
703-517-9108

로튼 (스프링필드 근처) 주택가 렌트  
넓은 1층 같은 워크아웃 전체  
방3, 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주방, 유틸리  
티 포함, 출입문 별도  
571-488-5860

Fairfax/Burke 지역  
노바, 조지메이슨, 버크H마트 10분 거리  
인터넷, 취사, 유포, 여자분 환영 \$650  
571-214-0188 (문자 요망)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하우스  
2층 욕실 딸린 큰방 렌트합니다.  
571-970-8048

애난데일 시루양방 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973-8123

애난데일 예촌양 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룸  
또는 작은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622-2033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방  
고 조용한 윗층방, 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  
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페어팩스 조지메이슨 & 노바 대학 근처 방 렌  
트,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703-472-2295

게인스빌 타운홈 베이스먼트 워크아웃 방하  
나 렌트합니다. 거실/화장실/세탁실/잠만  
주무실분  
703-732-1246

첼트리 롯데 근처 싱글 하우스 위층방 렌트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  
에서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  
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H마트 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홈 밝고 큰 화장실 딸린 방  
렌트합니다. 교통편리 롯데1분 한강식당 1  
분 거리, 입구 별도, 주차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스프링필드 (Backlick & Braddock이 만나  
는 곳) 조용한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 렌트  
워크아웃, 간단 취사 가능, 교통편리, 주차넉  
넉, 남자분 환영  
703-750-2795

GMU 근처 조용한 동네 싱글하우스 욕실 딸  
린 큰방 하나 렌트합니다.  
남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 사무실/점포 렌트

센터빌 던킨도넛 뒤 오피스 렌트  
1층, 1250sf, 주차다수, 즉시 입주 가능  
703-861-9923 (문자)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 부동산 매매

1. 폴스처치 싱글홈 \$1,179,000  
방4, 화3, 3,128sf, 2021년  
2. 페어팩스 타운홈 \$715,000  
방3, 화2.5, 1,868sf, 우슨하이 학교  
1-66/RT-50 인근  
3. 알링턴 콘도 \$675,000  
방2, 화1.5, 901sf, 클라린턴 메트로역 인근  
▶703-486-6082

1.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화1+Den, 근로케이션, 전체 마루,  
넓은 테,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2. 센터빌 타운 \$600,000  
방3, 화2.5, 차고1  
3.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차고2  
▶703-919-0472

1.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2005년  
방4, 화3.5, 차고2, 집 전체 마루, 교통과 학  
군이 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핵심 입지 조건, 코스코 부근  
2. 센터빌 타운홈 \$530,000  
방3, 화3.5, 1250 sf  
3. 첼트리 타운홈 \$700,000  
방3, 화2.5, 차고2, 3레벨 모두 범프 아웃되  
어 동네에서 큰 타운홈이며, 지은지 11년된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GIVING TREE PET RESORT 기빙트리 펫 리조트**

이제 여행할 때 지인에게 강아지를 맡기시나요?  
여기 한인 2세가 운영하는 Pet Resort를 이용해 보세요!

**Room**

- 아늑한 럭셔리 룸
- 특급 Hotel급 특실
- 경력이 풍부한 훈련사
- 한적한 뒷동산 산책로

**Grooming**

- 한국인 선생님들의 풍부한 경력, 예술적 그루밍
- 목욕 및 스킨 케어
- 최신식 목욕 시설
- 실내 및 야외 놀이 시설

\*애견미용사 구함. (givingtree.alison@gmail.com/한인 담당: 571-660-8182)

- 1호점 (본사/레스톤): 571-325-2994  
1912 Association Dr. Reston, VA 20191
- 2호점 (폴스처치): 571-799-8100  
130 West Jefferson St. K9 Club, Falls Church, VA 22046
- 3호점 (알렉산드리아): 571-257-6420  
6118 Rose Hill Dr. Alexandria, VA 22310

www.givingtreepetresort.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지?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OK 택시**

장거리 영업로 어디든 가능  
병원, 공항, 장거리 카지노 모두 24시간 가능

**TAXI**

엘리콧 시티, 락빌, 애난데일

**노기사**

571-332-3987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비교적 새타운홈  
4. 센터빌타운홈 \$700,000  
방3, 화2.5 차고2  
▶703-231-5572

1. 패어팩스타운홈 \$850,000  
방4, 화장실3.5, 차고2, 엔드유닛, 아주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2. 패어팩싱글홈 \$999,000  
방5, 화장실4.5, 차고2, 넓은 구조와 잘 꾸  
여진 벽돌 집, 나무마루  
3. 패어팩싱글홈 \$1,050,000  
방4, 화장실3.5, 차고2, 웃슨 학교, 편리한 교  
통, 최근에 업데이트한 집  
4. 비엔나싱글홈 \$1,875,000  
방6, 화장실6, 차고2, 새집 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703-899-8999

1. Nottingham타운홈 \$349,900  
방4, 화장실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2. 포토맥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2+1, 차고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410-417-7080

메릴랜드 랜햄싱글홈 \$700,000  
1991년, 방4, 화3.5, 차고2, 지하올수리, 업  
그레이드, 넓게 확장한 거실  
▶703-863-0321 / 301-399-0140

알렉산드리아 3층타운홈 \$749,900  
방3, 화3.5, 차고2, 교통 편리  
▶703-489-6926

우드브릿지싱글홈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싱글홈  
▶703-622-0312

1. 센터빌타운홈 \$600,000  
방3, 화2.5, 차고1  
2. 센터빌타운 하우스 \$700,000  
방3, 화2.5, 차고2  
3. 비엔나콘도 \$325,000 방1, 화1  
▶703-919-0472

엘리컷시티싱글홈 \$749,000  
방4, 화3.5, 차고2  
▶301-318-4242/443-668-0453

1. Elkridge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2+2, 차고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2. 실버스프링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3+1, 차고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타운홈,  
3. 엘리컷시티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3+1, 차고2, 밝고 이쁘게 잘 꾸  
며진 집, 넓은 뒷뜰  
▶410-417-7080

1. 워싱턴 DC SE타운홈 \$649,000  
방5, 화장실3+1, 새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예쁜 집  
2. 워싱턴 DC 듀플렉스 \$950,000  
방4, 화장실4+1, 차고1 새집, 편리한교통, 모  
던한예쁜 집  
▶410-417-7080

## 사업체 매매

1. 애난데일 한국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콧시티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sf  
▶문의 703-534-4989

DC 백악관옆 픽업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수익, 은퇴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곳 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 전문/곳 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뷰라이센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게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7.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8.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9.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10.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 MD  
11. 쿡후티, Bakery 등 다수 리스팅 보유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샌드위치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 중고 매매 / 기타

현대 산타페 2020, 실버, 8만 마일,  
상태 매우 양호, \$18,000  
240-205-4949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스티용 밥기 (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3. 튀김 (덴뿌라) 기계 300불  
4. 스몰 그릴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요망)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2018년 포드 트랜짓 250, 인슐레이션된  
쿨러백,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영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 드리  
겠습니다.  
703-869-5919

피아노 레슨 합니다.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비속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낯선 홈,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색스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 건축/페인트/마루

손 사이딩 올드 하우스 메케니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  
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역,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L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역, 화장실, 지하실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 (In & Out), 텍 메인터넨스와 클  
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역,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메디케어에 많  
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  
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번의 점검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703-598-3316

올리화재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  
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로리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용자 주택/상업용/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득/가스검사

JD STAR 소득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냉동 / 히팅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  
문, 민고 맡겨주세요.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핫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선탱장비, 케리아  
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  
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  
의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  
드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번시공은 끝  
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스  
팀삼부,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홀청소, 응급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  
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  
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  
Email: 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탈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페  
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이삿짐 포장  
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 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  
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 리모델링/핸디맨/전기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  
접(철, 스텐, 알루미늄) /제적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밥-청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전문  
703-340-5858 (VA)  
443-980-5858 (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iversal

##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벽,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미용 타투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수아 미용 타투**

SERVICE LIST

- 두피 염색 (가르마, 정수리 전체)
- 눈썹, 아이라인, 입술
- 속눈썹/헤어 생장술
- MTS (미백, 주름개선 세럼)
- 스킨케어



443-722-5925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 웨딩스토리

###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 인터테크 냉난방

###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 EVERSHINE Construction

###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15년 이상의 경험 • 보험가입

**703.994.2943**  
Ray Kim

##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 홈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씬펌프 교체

**571.594.4080**  
V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 블라인드 / 틈트

##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카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 건강마을

HealthTown

매년대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신년 스페셜 SALE

부모님이 좋아하실 선물은 역시 세라젬!! 디자인 아 성능도 아 기쁨 더~더욱 아

# 세라젬 CERAGEM V7

일상 회복의 새로운 기준

세라젬의 시그니처적 특징인 7축의 독립된 차축

3가지 컬러 옵션으로만의 세라젬  
 화이트, 블랙, 카운터탑

CERAGEM FDA

## CERAGEM V7

무어함과 힐링의 만남

스파링 스펀지: 시공된 스펀지 매트리스를 사용하여 7축 7방향의 움직임이 가능하여 편안한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특-어깨 특출한 마사지: 어깨와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사지 할 수 있는 4방향의 3D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완벽 케어: 목과 어깨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사지 할 수 있는 4방향의 3D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미국 FDA 인증 2등급 의료기기

당신의 공간을 품어 주세요

www.ceragemusa.com

# 풀무원 김치냉장고 런칭 기념 세일!

내 공간에 딱 맞는 김치냉장고 바쁜 아침을 담는 빠른 솔루션

## 풀무원 김치냉장고 120L

PULMUJONE KIMCHI FRIDGE 120L

~~\$1,399~~ **\$999**

건강에도 맛있게 풀무원 인버터 풀링시스템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6가지 맞춤 보관 모드

# STEAMBOY 스팀보이 카본 온수매트

~~싱글 \$340~~ **\$300**

SPECIAL OFFER

## 오래된 안마의자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신속원히 할인해 드립니다.

**Osaki PRO 4D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뉴 프리미엄 4D 안마의자

## 실드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 일월 개화몽 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일월매트의 자부심 안전한 잠자리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 휴표 휴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퀵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턴 지정 대리점

# 월턴편백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2 무도창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5 3중 고온 안전처리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 탁월한 발열 시스템  
 ▶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 3단 편리한 작동  
 ▶ 우수한 안전성

▶ 절찬리 판매중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로 건강을 채우고 피로를 푸세요~

Nation Wide

#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www.92chickenusa.com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업종을 변경하고 싶은 창업주 모집**

**치킨, 핫도그, 떡볶이, 소스  
장비박스, 도매, 미국 전지역  
문의 : 770-769-7575**



**92K-corn dog  
K-WINGS  
Korean style chicken**

**92Chicken  
KOREAN STYLE CHICKEN**

**식당자리 구함! 부동산환영! 90개 매장오픈!  
다양한 노하우로 성공을 만들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기타 지역

매매

구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5년된 일본 레스토랑 매  
연 1.5 밀리언, 렌트 7350  
3300 sf, 파티오에 10개 테이블  
모든 리커 라이센스 보유  
새로 단장한 인테리어  
주인 건강상 이유  
가격 85만불.  
(336)740-5109

**알라스카지역**  
\*중식쉐프...0명  
\*스시맨...0명  
취업결격사유없는분  
숙식제공  
(858)337-0982

한식 주방장 & 스시맨  
알라스카-숙식제공  
특별우대  
(907)456-2060  
(907)888-6666

**알라스카 일식당**  
하루매상 \$3,000  
매매가격 \$30만  
(408)497-1540  
메세지 남겨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흥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Kim's Acupuncture Clini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폴립·변비·요실금 출혈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똥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마리클 터치 (213)675-6877**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COLDWELL BANKER E-mail: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취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빠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2026 학년도**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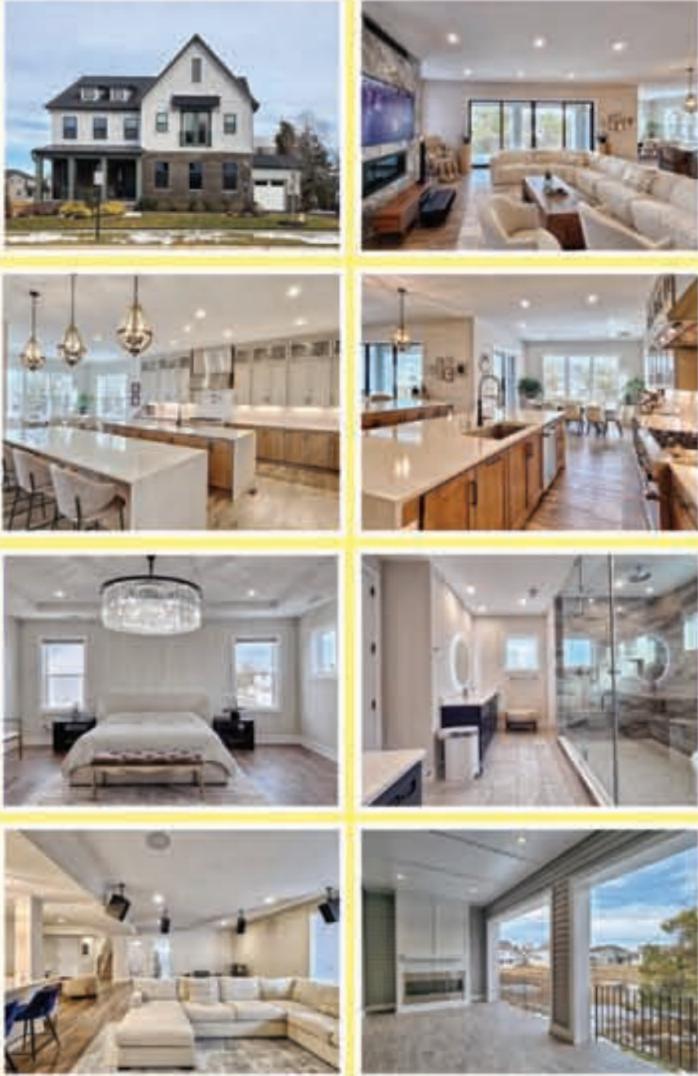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WesternAve.#100 Los Angeles, CA 90020 | TEL:213-272-6031

## 독점 Aldie 고급 싱글홈

5,800sq, 40만불 이상 업그레이드한 집, 2024년, 방5, 화5 1/2, 최고급 빌더, Premium Lot, 더블 아일랜드, 최고급 기능 부엌, 특별하게 디자인된 안방 화장실과 Working Closet

**\$1,725,000**



##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집 전체를 업그레이드한 타운홈, 1-2-3층 구조, 리노베이트한 부엌 (New Cabinet, Granite Countertop, SS Appliances), 새로 꾸민 화장실들, 방3, 화2 1/2, 밝고 환한 집

**\$449,900**



## 독점 Burke 싱글홈

방4, 화3 1/2, 2 Car Garage, 집 전체 리모델링, 새 지붕, 새 HVAC 시스템, 새 창문, 새 DECK,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모든 화장실 업데이트

**\$975,000**



## 독점 Herndon 콘도

방2, 화2, 예쁘게 새로 단장한 콘도, 맨 윗층 새로 꾸민 화장실들, 완전히 새로 업그레이드한 부엌, 새 페인트, 새 조명과 전등, (New Cabinet, Granite Countertop, 새 주방용구), 교통 편리, 밝고 환한 콘도

**\$310,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